

미전도종족 선교의 개념과 전략*

Mission to the Unreached People:
Concept and Strategy

신경규

고신대학교 국제문화선교학과 교수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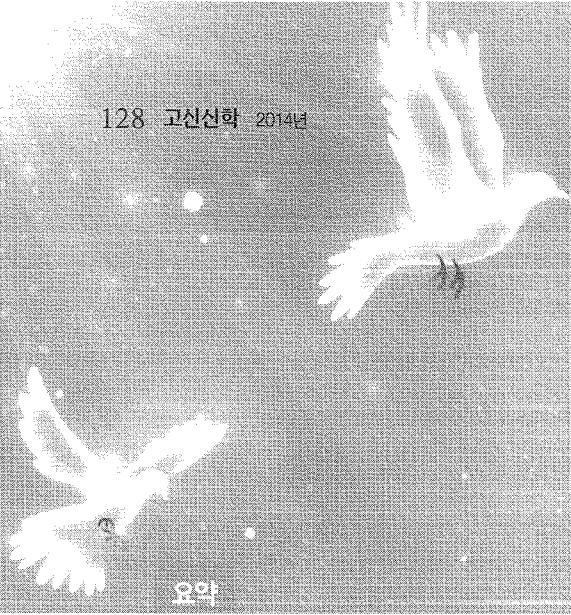
I. 들어가는 말 | 133

II. 미전도종족 선교 | 134

III. 미전도종족 선교의 성경적 기초 | 147

IV. 미전도종족 선교 전략 | 152

결론 | 180



미전도종족 선교의 개념과 전략

세계선교는 국가 중심의 선교가 이루어져 오다가 20세기 중반 이후부터 종족 중심의 선교가 등장하였다. 이러한 조류는 로잔대회를 기점으로 1980대 부터는 본격적으로 종족선교가 주된 선교조류가 되어 오고 있다. 한국 역시 그 선교시수가 2,500명을 넘은 시점에 그들의 대부분이 기존 교회가 세워진 지역이나 국가에 파송되어 있다. 자원은 제약되어 있고 선교할 것이 많은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기에 20세기 중반부터 시도된 추수신학에서는 수용성이 높은 지역으로만 파송됨으로써 심각한 중복투자가 이루어져 선교자원을 낭비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는 종족선교로 그 방향을 바꾸어야 할 시점이다. 본 논문은 종족선교의 네 가지 전략, 미전도종족입양, 도시미전도종족선교, 전문인선교, 전방개척선교 등을 논한다.

* 본 논문은 고신교단 선교 60주년에 개최된 포럼에서 발표한(2014. 8. 25) 논문을 수정, 보완 한 것임.

Mission to the Unreached People: Concept and Strategy

주요어

미전도종족선교, 종족입양, 도시선교, 관문도시선교, 전문인선교, 전방개척선교, E측도, P측도

Abstract

Mission to the Unreached People: Concept and Strategy

Prof. Dr. Shin Kyung-kyu

Mission to the unreached people in the world is a task remained which Jesus committed to the disciples. Almost 3 billions, 40% of the world population, are remained as the unreached people now a days. Usually a politically sustaining country is composed with at least three to five people groups. In Korea, mission to the unreached people started in about 1993.

'people' or 'people group' is defined as 'a people group within which there is no indigenous community of believing Christians able to evangelize this people group,' in missiology. Chicago Consultation on unreached People defined 'unreached people group' as 'a significantly large grouping of individuals who perceive themselves to have a common affinity for one another because of their shared language, religion, ethnicity, residence, occupation, class or caste, situation etc., or combinations of these.'

There are four major strategies for the mission of the unreached people; Adopt-A-People mission strategy, urban unreached people mission strategy, tent-maker mission strategy, and frontier mission strategy.

Adop-A-People strategy is a mission strategy which a church

adopts unreached people(s) in the Gospel and God's love to reach them. It is necessary to have information about them, and, therefore, it has to research them for approaching, for community development, and for church planting.

Urban unreached people strategy usually has urban anthropological perspective. Today's unreached people dwell in cities with their own clusters among those cities, and they have many problems, like housing, air pollution, poverty, crimes, etc. Therefore, urban churches, if they unite together for serving the unreached people, can have many opportunities ministering among unreached peoples.

Tent-makers with their own jobs and professional knowledge and skills have a lot opportunities working and ministering for the unreached people both in the cities and rural areas. Especially, they are closely linked with urban missionary works with many areas of using their jobs, professional skills and knowledge.

Frontier mission is defined by the concept of E-Scale and P-Scale. the realm of folding area between E-2,3 and P-2,3. Frontier mission concept includes mission to the unreached people mission as well, so its concept is broader than the unreached people mission. It also contains abstract concepts, suggested by Dr. Ralph Winter including with 12 abstract areas.

Finishing the task remained is one of the ultimate goals to accomplish Jesus great commission. Korean churches have to know and realize the urgency of the mission to the unreached people to accomplish the task remained, and Korean ministers

need to know this concept and to do their best in spreading this mission concept and strategy of the unreached people to their church members.

Keywords | Unreached people, Mission to the unreached people, Urban mission, Urban unreached people, Adopt-A-People, Frontier mission, P-Scale, E-Scale

I. 들어가는 말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냉전체제의 종언과 함께 구소련이 붕괴되고, 많은 소수 민족국가들이 다시 생겨나게 되었다. 크고 작은 종족¹⁾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아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서 생존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선교지에서 선교전략의 변화라는 과제를 던진다. 선교는 하나의 정치적 ‘국가’가 아닌 자신들 나름의 정체성을 지니고 살아가는 ‘종족’이 대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마 24:10). 보다 구체적이고 장기간 지속적으로 전략을 필요로 하고 있다.

미전도종족선교운동은 1993년에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²⁾ 1993년을 기점으로 잡은 이유는 그 실행연합체로 한국미전도종족입양운동본부(Korea Adopt A People)³⁾가 당시 4개 교단과 7개 단체를 중심으로 연합적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그동안 한국에서의 미전도종족 선교운동을 고찰해보는 기회를 통해 보다 미래지향적인 전망과 지향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 운동이 한국에 소개되면서 이후 지금까지 FIT Korea를 통해서 다시 미전도종족선교운동이 주창되어지고 있는데 이는 세계복음화와 남은 과업 완수라는 측면에서 미전도종족선교 이슈가 여전히 시대적 과제이자, 이 시대의 가장 전략적인 선교임을 반증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나온 시간들 속에 선교전반과 미전도종족 선교운동에 놀라운 진척을

1) 종족, 족속, 민족 등의 개념은 영어와 헬라어로 *people(ἔθνος)*이라는 동일한 의미의 단어인데(마 24:10, 마 28:19), 본 논문에서는 설명의 편의상 ‘종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2) 출처: <http://www.upma21.com/board/> (2014. 7. 30. 현재).

3) AAP: Adopt A People, KAAP: Korea Adopt A People 한국미전도종족입양운동본부

보여 온 한국교회가 21세기 당면한 과제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지역교회가 선교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수행해 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과 잠재력을 변화하는 세계의 흐름에 맞추어 대응해 나간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과업”(Unfinished Task)을 완수(FTT)⁴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II. 미전도종족 선교

21세기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종족 간의 분쟁이 더욱 확대되어 더 큰 범위의 민족 간의 갈등, 국가 간의 분쟁으로 확산 되고 있는 상황이다. 종족의 전체성을 확립하고 독립하려는 움직임이 분쟁으로 나타나고, 이것이 선교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며, 이는 또한 종족 단위로 선교가 진행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현상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1. 선교대상의 변화

21세기 선교는 ‘국가’를 복음화 한다는 개념에서 ‘종족’을 선교해야 하는 상황으로 바뀌었다. 현재 미 복음화 지역 내에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정치국가 안에 적어도 5~10개 이상의 종족이 모여 있는 지역이 대부분이다. 이제 선교의 개념은 정치적 ‘국가’의 단위에서 ‘종족’의 단위로 바뀌어야 한다.

인도의 경우 2,000개 이상의 카스트가 존재하고, 2332개의 종족이 있으며, 그 중에서 2082개의 종족에 ‘활발하게 전도하는 교회’가 없는 미전도종족으로

4) Finishing The Task(남은 과업 완수)의 단어 첫 글자를 딴 것임. 2006년 7월에 FTT운동(Finsishing The Task Movement: 남은 과업 완수운동)이 시작되었다.

남아 있다. [그림1]은 중국과 인도를 비롯한 인근 서남아시아지역 국가들인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의 총 종족수와 그 중에 미전도종족으로 남아 있는 종족의 현황이 표시되어 있다. 중국이 약 500개 종족 중 406개의 종족이 미전도종족으로 남아 있고, 파키스탄이 전체 401개 종족 중 386개 종족이, 방글라데시가 전체 370개 종족 중 336개 종족이, 네팔이 전체 315개의 종족 중 292개의 종족이 미전도종족으로 남아 있는 것을 보여 준다. 이들 나라들은 거의 복음의 황무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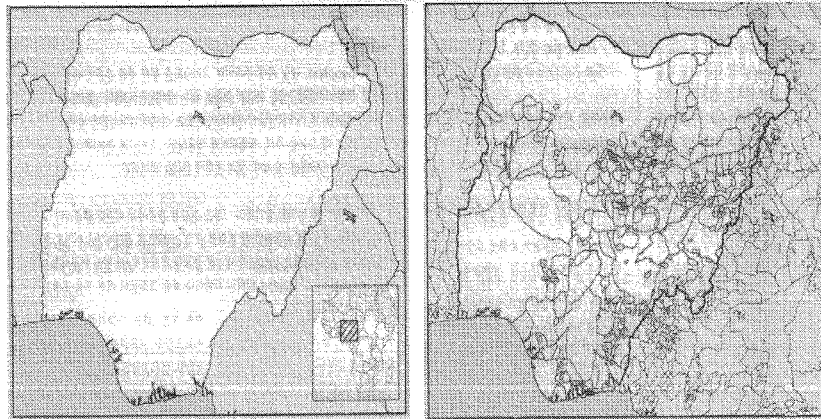


[그림 1] 중국과 서남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총 종족 수와 미전도종족 현황

이러한 현상은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등 세계 대부분 나라의 경우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는 인구가 1억 5천만 명이 넘는 정치적으로는 1개의 국가 단위이지만 그 국가 안에 427개의 인종언어학적인 종족이 존재하고 있다.⁵ 서로 다른 언어와 종족에게 접근하는 선교전략도 달라야 한다는 것을 종족 개념과 현황이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인도네시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5) Ralph D. Winter & Bruce A. Koch. "Finishing the Task: The Unreached People Challenge," *International Journal of Frontier Mission*. Vol. 19. No. 4. (Winter, 2002), 18.



[그림 2] 나이지리아와 그 종족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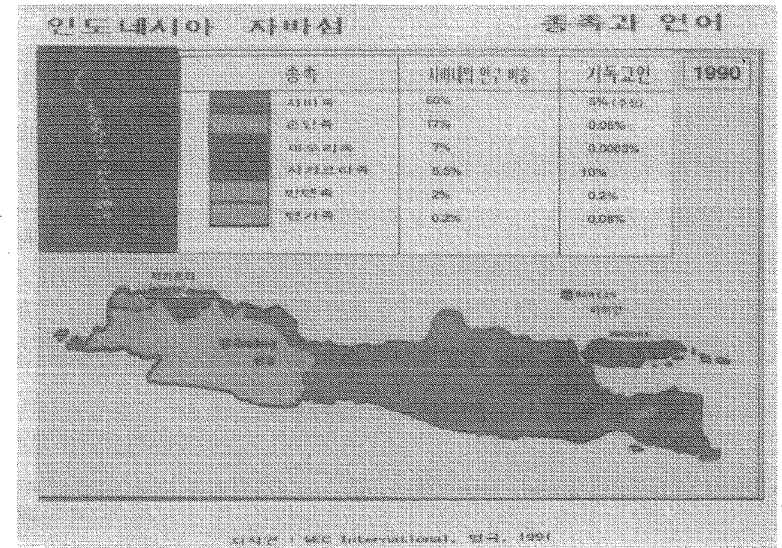
출처: Ralph D. Winter & Bruce A. Koch. "Finishing the Task: The Unreached People Challenge," *International Journal of Frontier Mission*. Vol. 19. No. 4. (Winter, 2002), 17.



[그림 3] 동남아시아의 무슬림 국가들

[그림 3]은 동남아시아의 국가들을 보여 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인구가 약 2억 4,000만 명이 넘는 세계 최대의 이슬람국가인 인도네시아가 대부분의

인구와 영토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4] 인도네시아 자바섬의 종족 현황과 기독교인 비율

[그림 4]는 인도네시아 중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인구밀도가 높은⁶⁾ 자바섬에 살고 있는 종족들의 분포지역과 그들 중 기독교인들의 비율을 보여 주고 있다. 이 그림을 보면 (1) 자바인은 자바섬에서 가장 많은 전체 60%의 인구가 살고 있지만 그 거주 지역은 중동부지역과 수도인 자카르타 주변으로 사마우 밀집되어 살고 있으며, 그 복음화 비율은 5%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2) 자카르타족은 수도 자카르타 주위에 밀집되어 있는데 인구의 5.5%, 복음화율은 10%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3) 한국과 합작으로 석유를 시추한

6) 인도네시아의 인도네시아 안에 있는 큰 섬 5개 중 하나인데 갈리만탄, 이리안자야, 수마트라, 술라웨시보다는 작지만 가장 인구가 많은 자바섬은 일본의 가장 큰 섬인 혼슈에 비해서도 인구밀도가 높다. 이들에 이어 세 번째로 인구 밀도가 높은 섬인 영국의 그레이트 브리튼 섬이다. 출처: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 (2014. 7.30. 현재).

곳이기도 한 마두라섬의 마두라족은 자바섬 인구의 7%를 차지하고 있는데, 복음화율은 거의 0%로 선교사의 무덤으로 알려져 있다.

그 밖에 예를 들지 않은 세계의 많은 국가들의 상황도 거의 유사하다. 한 국가 내에 여러 종족이 공존하면서, 언어와 문화를 달리하여 살고 있으며, 그들 종족 각각의 복음화율도 다르다. 따라서 현대의 선교는 ‘종족단위’로 선교가 이루어 져야하며, 그에 따라 종족마다 그 선교전략이 각각 달라야 한다.

2. 선교대상으로서의 미전도종족과 그 개념

현대선교가 시작된 이후에도 많은 선교사들과 선교학자들은 선교에 있어서 ‘종족’ 개념의 중요성과 ‘종족 선교’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알지 못하였다. 국가를 단지 지정학적인 관점에서만 이해한 것이다. 그러나 WBT선교회의 창설자인 카메론 타운젠트(Cameron Townsend)는 중미 과테말라 각치켈 인디언 족이 국가의 공식 언어인 스페인어를 잘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통해 한 국가 내에 다수의 ‘인종언어학적 종족’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또한 인도에서 20년 이상 사역한 도날드 맥가브란(Donald MacGavran)은 ‘인도’라는 한 국가 안에 같은 종족 내에서도 서로 접촉하지 않는 수많은 카스트의 존재로 인해 ‘사회학적 종족집단’이 존재함을 발견하게 되어 이를 선교에 적용하면서부터 ‘종족’의 개념이 선교에 적용되게 되었다.⁷⁾

그러나 이러한 발견만으로는 충분치 않았는지 수 십 년이 지났는데도 구체적인 종족선교의 전략과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자, 마침내 랄프 윈터(Ralph C. Winter) 박사가 1972년도 ‘계간 복음선교’(EMQ: Evangelical Missions

7) 정보애, “한국 미전도종족선교 역사와 그 이해,” 『미전도종족: 한국 미전도종족선교 성과·과제·협력』 (서울: 엽마·넷, 2014), 173.

Quarterly)에서 교회와 선교계가 종족에 대해 맹인(people blindness)이라고 맹렬히 지적함으로써 비로소 그 얼마 이후에 열린 제 1차 로잔대회(1974)에서 그의 견해가 수용되어 ‘종족선교’가 본격적이고도 주된 세계선교의 방향으로 자리매김 하게 되었다.

1982년 3월 미국 시카고에서 로잔세계복음화위원회가 소집한 22개 선교기관과 조사자들의 모임에서 성경에 근거한 미전도종족에 대한 정의가 내려짐으로써 새로운 선교운동의 장(場)이 열리게 되었다. 미전도종족의 개념에 대해서는 미국세계선교센터(USCWM: U. S. Center for World Mission)의 원장을 역임한 故 랄프 윈터 박사에 의해 그 개념이 발전, 정위되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의 공로와 헌신에 힘입은 바가 크다.

미전도종족은 ‘미전도’(unreached)와 ‘종족’(people)이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이다. ‘종족’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있는 단어이다. 이것은 이 단어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의미이며, 이에 관하여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 반면에, ‘미전도’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전도라는 단어는 나오므로 그 반대인 ‘미전도’라는 용어도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 두 용어를 각각 고찰한 이후 미전도종족 전체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자 한다.

1) ‘미전도’의 개념

일반적으로 많은 교회구성원에게 복음화라는 개념은 복음을 듣고 수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라는 통념이 되어 있는 듯하다. 그러나 선교학에서 논의되는 복음화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수용성과 관계없이 복음이 어느 정도 명확하고도 완전하게 전달된 정도”를 복음화여부의 판단 기준으로 간주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미전도’의 의미는 ‘숨겨진’,

8) 혹은 ‘족속’

‘잊혀진’, ‘무시되어진’, 또는 ‘닿지 못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미전도’(unreached)라는 개념을 논하기 위해서는 그와 반대 개념인 ‘전도됨’(reached)의 개념을 고찰해 보면 미전도 개념을 역으로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전도됨’의 개념을 고찰하여 현실적인 의미에서 미전도의 개념을 정리해 보는 과정으로 미전도의 개념을 유추하기로 한다.

선교학계와 선교현장에서는 ‘전도됨’(reached)이라는 개념에 관하여 두 가지 의견으로 나누어진다. 그 하나는 ‘복음이 전해진 여부’를 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생적인 교회의 존재여부’가 전도(복음화) 되었는지 아닌지를 결정한다고 하는 두 개의 의견이 그것이다.⁹⁾

(1) ‘복음전파의 정도’에 초점을 두는 견해

이 견해는 ‘전도됨’을 복음이 얼마나 확실하고도 널리 전파되었는가의 정도에 따라 정의한 것으로 복음이 모든 구성원들에게 전해진 것을 ‘전도되었다’고 보는 견해이다.

패트릭 존스톤(Patrick Johnston)은 “‘전도됨’이라는 것은 반응과는 무관하나 선교학적 사고와 접목되어 있는 관계로 늘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전도됨’이란 한 종족이나 지역의 복음화를 위한 노력의 질과 정도의 표시이지, 제자화나 교회개척의 질과 정도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¹⁰⁾고 말함으로써 교회의 존재나 교회개척과는 무관하게 복음이 전해진 정도를 전도됨으로 규정하고 있다. 덴버신학대학원의 랄프 코블(Ralph Covell) 역시 이와 유사하게 전도됨을 “복음이 의미 있게 전달되어 듣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수용하거나

거부할 적절한 기회가 주어진 상태”¹¹⁾로 설명하고 있다. 복음전도를 위한 세계적인 방송사 HCJB World Radio의 대표를 역임한 로날드 클라인(Ronald Cline)은 “지구상의 모든 남녀, 어린이들에게 복음전달의 수단이 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라디오를 들었을 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¹²⁾ 전도되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그 사역의 특성을 반영한 정의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의 정의는 공통적으로 복음이 어느 정도 전해졌는가에 전도됨(복음화)의 근거를 두고 있는 정의들이라고 할 수 있다.

(2) ‘자생적인 교회의 존재여부’에 초점을 두는 견해

반면에 특정한 종족이나 지역에 자생적이고도 활발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존재하는가 여부로 전도됨의 여부를 판단하는 정의도 있다.

SIM International의 대표를 역임한 이안 헤이(Ian Hay)는 “한 종족 내에 그리스도의 몸(교회)이 존재하고 스스로 존립할 수 있을 때”¹³⁾ 전도되었다고 할 수 있다”고 정의함으로써 자생적인 교회가 설립된 상태를 복음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TEAM(The Evangelical Alliance Mission)선교회의 대표를 역임한 리처드 윈첼(Richard Winchell)은 “어떤 이가 의식적으로 결정할 만큼 이해할 수 있도록 복음을 들을 수 있어야 복음이 전해졌다고 할 수 있다. … 아마 ‘전도됨’이란 한 지역사회 내에 자생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있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¹⁴⁾라고 전도됨의 의미를 정의함으

9) EMQ. “What does “reached” mean? An EMQ Survey,” *Evangelical Missions Quarterly*. Vol. 26. No.3. (July 1990), 316-321.

10) *Ibid.* 317. “Reaching has nothing to do with response, but this is so embedded in our missiological thinking that we have to live with it. Reaching is really an indication of the quality and extent of the effort to evangelize a people or region, not of discipling and church planting.”

11) *Ibid.* 317. “communicating the gospel responsibly so that hearers will have an adequate opportunity to receive or reject Jesus Christ.”

12) *Ibid.* 318-9. “to reach the world means to provide for every man, woman, and child on earth the opportunity to turn on their radio and hear the gospel of Jesus Christ in a language they can understand.”

13) *Ibid.* 319. “a people when the body of Christ is there and is viable.”

14) *Ibid.* 319. “a person hasn’t heard the gospel until he or she has heard it with kind of

로써 자생적인 교회의 존재를 복음화로 정의하고 있다. NTM부족선교회(New Tribes Mission)의 딕 솔리스(Dick Sollis)는 “모든 인종언어종족 내에 적어도 하나의 교회가 설립된다면 (전도됨의) 큰 걸음이 옮겨진 것일 것이다(계 5:9).”¹⁵⁾라고 전도됨의 의미를 정의함으로써 위와 같은 맥락에서 정의하고 있다.

DAWN¹⁶⁾ Ministries의 총재인 제임스 몽고메리(James Montgomery)는 전도되었다는 의미를 “첫째, 각 종족집단마다 자생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하나씩 설립되는 것, 둘째, 500에서 1000명의 거주지 가운데 복음증거할 수 있는 하나의 교회가 설립되는 것”이라고 하여 교회개척을 통한 자생적인 교회의 존재 여부를 전도됨의 척도로 삼고 있다. 또한 CCC 총재를 역임했던 빌 브라이트(Bill Bright) 박사 역시 전도되었다는 개념을 이와 유사하게 “다음의 영적 증식과정이 지역 내에서 계속되어 질 수 있는 상태: 노출(expose), 영혼구원(win), 성장(build), 훈련(train), 파송(send)”로 그 기준을 삼았는데 이는 다름 아닌 영적 번식이 가능한 ‘자생적인 교회’(viable church)의 존재여부인 것이다.

복음화에 대한 이러한 두 가지 개념에서 나아가 이 두 개념을 모두 포함한 복음화의 개념을 사용하는 견해도 있다.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교수를 역임한 헤셀그레이브(David Hesselgrave)의 견해가 그러하다. 그는 “전도됨이라는 개념은 두 가지 기본적인 요소를 포하고 있다. 첫째, 복음이 이해할 수 있도록 들려져야 하고, 둘째, 지리적으로, 문화적으로 진정한 크리스천과 교회를 접할 수 있어야 한다.”¹⁷⁾고 말함으로써 위의 두 개념을 다 포함한 의견을

understanding that allows a conscious decision. ‘Reached’ may have a similar definition. Perhaps ‘reached’ means there is a viable witnessing church in the community.”

15) *Ibid.* 320. “It would seem to be a major step if we could plant at least one church in every ethno-linguistic group (Rev. 5:9).”

16) *Discipling A Whole Nation*의 약자.

17) EMQ. “What does “reached” mean? An EMQ Survey,” 320. “(a term that) basically includes

제시하고 있다. 엄밀하게 말한다면 이 견해가 가장 포괄적이고도 정확한 범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 지구상에서 복음화 된 종족의 수는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1982년 3월 미국 시카고에서 개최된 미전도종족회의(Unreached Peoples Meeting)에서는 미전도종족을 “자신의 종족집단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생적인 공동체가 없는 종족집단”¹⁸⁾으로 정의하고 이 미전도종족은 “자신의 종족에게 스스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자립적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없고, 지도자를 양성할 신학교도 없으며, 복음화율이 전체 종족 인구 가운데 2% 미만 인구의 경우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자생적 교회의 존재여부를 복음화 내지는 복음화의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는 견해와 같은 맥락에 있음을 알 수 있다.¹⁹⁾

2) ‘종족’의 개념

1982년 시카고에서 개최된 미전도종족회의(Unreached Peoples Meeting)에서는 ‘종족’(people)을 “언어, 종교, 인종, 주거, 직업, 계급이나 계층, 처지 등이나 혹은 이것들이 결합된 것을 공유하고 있어서 그들 스스로가 상호간에 공동의 유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개인들의 상당히 큰 집단”²⁰⁾으로

two elements: (1) an understandable hearing of the gospel, and (2) accessibility (geographically and culturally) to a truly Christian, evangelizing church”

18) Ralph D. Winter & Bruce A. Koch. “Finishing the Task: The Unreached People Challenge,”

19. “a people group within which there is no indigenous community of believing Christians able to evangelize this people group.”

19) 한정국 편저. 『종족창문으로 본 현대선교 1』, (서울: 감인, 2014), 32ff. 이것은 전체 인구 중 활동적인 그리스도인들이 20% 이하일 때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다고 하는 과거의 기준을 폐기하게 된 것이며 대신 “자력 전도의 능력을 가진 교회의 존재”라는 새로운 기준을 도입한 것이다. 한국미전도종족입양운동본부. 『선교정탐훈련 표준강의안』. (서울: AAP, 2000).

20) Ralph D. Winter & Bruce A. Koch. “Finishing the Task: The Unreached People Challenge,”

정의하였고, 이에 따라 ‘미전도종족(Unreached People)’에 대해서는 “자신의 종족집단에 복음을 전파할 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생적인 공동체가 없는 종족집단”으로 정의하였다.²¹⁾

랄프 윈터(Ralph D. Winter)와 브루스 코흐(Bruce A. Koch)는 종족을 종족권(주요문화권, 유사권), 인종언어학적 종족, 사회학적 종족집단, 단일최대종족 네 가지로 분류하여 이 네 개념이 공히 미전도종족을 복음화 하는 데에 유용함을 말하고 있다.²²⁾ 그들은 그 네 가지 분류 중에서 뒤의 두 개념은 모두 측정이 힘든 개념들이라고 말하고 있다. 사회학적 종족집단(Socio-peoples) 개념은 사회학적 그룹의 구분방법과 그 범주에 따라 수십만 개로 구분될 수 있는 개념이다. 따라서 이를 측정하기 곤란하다는 말은 타당하다. 이들에 따르면 단일최대종족(Unimax People) 역시 측정하기 곤란한 종족집단 개념이다. 단일최대종족은 “그리스도를 향한 종족운동의 대상이 될 만큼 충분히 단일화된 최대 크기의 집단”으로 정의하여 그 정의 자체 내에 “충분히 단일화 되었다.”는 말 자체에서 측량의 모호성을 내재하고 있다. 즉 단일최대종족의 개념은 전체 과업의 양을 정확하게 수량화하기 위한 개념이 아니라 어디에서 미개척 선교과업이 끝나는지 인식하고 과업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곳이 어디인지를 밝히는 데에 그 주목적이 있는 개념이다.²³⁾

현대 미전도종족 전문선교기관인 AAP와 이의 발전적인 연합체인 UPMA의 정의에 의하면 종족(People) 혹은 종족집단(People Group)이란 “그들 스스

19. “a significantly large grouping of individuals who perceive themselves to have a common affinity for one another because of their shared language, religion, ethnicity, residence, occupation, class or caste, situation etc., or combinations of these.” cf. John Piper. *Let the Nations Be Glad!* (Baker, MI: Grand Rapids, 2003), 158.

21) *Ibid.* “Finishing the Task: The Unreached People Challenge,” 19. “a people group within which there is no indigenous community of believing Christians able to evangelize this people group.”

22) *Ibid.* 17-19.

23) *Ibid.* 19.

로 공통적인 친밀감을 가지고 있는 개인들의 집단으로 대단히 큰 인종-언어학적인 집단이다. 복음화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나 수용의 장벽에 부딪히지 않고 복음이 교회개척운동으로서 확산될 수 있는 가장 큰 집단이라고 말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종족이란 동일한 언어와 문화를 가진 커다란 인종언어학적 집단의 사람들을 말한다. 현재 세계선교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종족 리스트는 언어, 인종, 그리고 소속국가라는 세 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또한 미전도종족(Unreached People)에 대해서는 “‘미전도’라는 말은 ‘숨겨진’, ‘잊혀진’, ‘무시되어진’ 또는 ‘닿지 못한’의 뜻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미전도종족이란 타문화권의 도움 없이 자신의 종족 스스로가 복음화하기 위한 적절한 사람들이나 자원이 될 수 있는 독립적인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없는 집단을 말한다. 선교학적인 측면에서는 각 종족 당 기독교인이 5% 이하인 종족을 미전도종족의 범위에 포함시킨다.”²⁴⁾ 라고 정의하여 그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²⁵⁾

따라서 종합적으로 말하면 미전도종족이란 “자신의 종족에게 스스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자립적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없고, 지도자를 양성할 신학교도 없으며, 복음화율이 전체 종족 인구 가운데 2% 미만 인구의 경우를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²⁶⁾

3. 미전도종족의 특성

미전도종족은 한 번도 복음에 대해 노출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들을 향해 관심을 가져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 대체적으로 미전도종족

24) 출처: <http://www.upma21.com> (UPMA) 이하 UPMA 사이트에서 인용.

25) 조명순. “한국에 통용되는 ‘미전도종족선교’ 관련 용어,” UPMA 편. 『미전도종족: 한국 미전도종족선교 성과 과제 협력』, 184-195.

26) *Ibid.* (cf. UPMA 사이트) 참조.

집단은 다음의 몇 가지 이유로 인해 입양할 수 있는 종족으로 판명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아래와 같은 상황에 놓여있는 종족들을 입양하고 그들이 복음화 될 때까지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다.

- 이 종족은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다. 복음이 그들에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그들에게 선포된 적이 없다.
- 이 종족은 복음에 응답한 적이 없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유일한 길이며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 즉 진리임을 믿지 않는다.
- 이 종족은 교회를 갖고 있지 않다.
- 신자들은 예배, 가르침 그리고 전도를 위해 정기적으로 함께 모이지 않으며 교회 운동은 아직도 시작되지 않고 있다.
- 이 종족은 그들의 모국어로 번역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지 않다. 문화적으로 수용될 만한 하나님의 말씀이 문서, 시청각 자료들로 완비되지 못했다.
- 이 종족은 성경을 쉽게 접하지 못한다. 성경 보급에 대한 실제적 혹은 법적 제한이 있다. 문맹인이 이 종족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²⁷⁾

이상에서 볼 때 미전도종족은 “외부로부터 도움 없이 자기 집단을 복음화할 충분한 수의 기독교 신자 혹은 자원이 그 내부에 없는 종족”을 뜻한다고 정의할 수 있다.²⁸⁾

27) <http://www.upma21.com> (UPMA, 2014. 7. 30. 현재). cf. 한정국 편저, 『종족창문으로 본 현대선교 1』, 152.

28) *Ibid.* (UPMA, 2014. 7. 30. 현재).

Ⅲ. 미전도종족 선교의 성경적 기초

1. 구약성경에 나타난 종족의 개념

종족의 개념은 구약성경에서부터 명백하게 등장하고 있다. 창세지에는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에 의해 인류가 전 세계에 분포되었음을 보여주는데, 여기에서는 ‘각 종족, 방언, 지방, 나라’라는 표현 나온다(창 10:20, 31). 창세기 11장에 나타나는 바벨탑사건에서는 하나님께서 언어혼잡하게 하여, 인종언어학적 종족들로 나누어 전 세계로 흩어지게 하였음을 볼 수 있다.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것은 전 세계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시게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은 전 세계를 종족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계심을 명백하게 알 수 있다. 그 이후 구약에서 약속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열방과 모든 민족에 대하여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언약적 책임이 있었다(출 19:5-6).²⁹⁾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말할 때는 אַמ(am)이라는 단어 사용하고 있고, 이방종족을 말할 때는 גוים(goim)³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 גוים라는 단어는 땅을 지칭하면서도 어떤 특정 지역에 살고 있는 동일한 문화, 언어, 사회구조를 가지고 있는 민족을 의미하는 ארץ(eretz)와, 언어로 구분되는 종족을 의미하는 לשון(lashon), 그리고 혈연을 중심으로 한 씨족, 종족을 나타내는 מִשְׁפָּחָה(mishpachah)의 세 가지 의미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구약에서의 종족은 복합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³¹⁾ 이것은 구약성경에서

29) 출 19:4; 민 14:21; 신 26:19; 왕상 8:60; 시 67: 68:32-35, 72:8-11, 96: 100: 105: 148:; 사 42:5-8, 49:6, 56:6-8, 65:1, 66:18-21; 렘 12:14-17; 겔 37:2-23; 요나서; 말 1:11. 참조

30) גו(goi)의 복수형

31) 한정국 편저, 『종족창문으로 본 현대선교 1』, 59. 같은 책 29ff. 참조.

하나님께서 인류를 대하실 때 인종적 구분을 하셨으며, 이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계획도 택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하나의 ‘종족’을 이루어 실현하려고 하셨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따라서 구약성경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축복 받은 존재일 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에게 축복을 주는 존재로서의 양면성을 가지는 백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신약성경에 나타난 종족개념

신약성경에서 종족의 개념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단어는 ἔθνος(ethnos)인데 이 단어는 마태복음 28:19에 “모든 종족(ἔθνη)³²⁾으로 제자를 삼아”라는 표현과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ἔθνη)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마 24:14)”는 표현에 대표적으로 등장한다. 또한 요한계시록 5장 9절에는 마지막 날에 주의 보좌에 모여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각 종족(tribe), 방언(tongue), 나라(nation)”로 묘사하고 있어, 인종, 언어, 지역을 포괄하는 종족 개념을 보여주고 있다. 즉 신약에서도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모든 종족에게 복음이 전파됨으로써 성취될 것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³³⁾

종족을 나타내는 ἔθνη(ethne)의 의미에 관해서는 학자 간에 논란이 많다. 이를테면 존 파이퍼(John Piper)는 그의 대표적인 개혁주의 선교학 저서인 『열방을 향해 가라』(Let the Nations Be Glad!)에서는 ἔθνος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① 단수로서 이방인이 개인이 아닌 인종그룹 혹은 민족을 뜻한다. ② 복수 ἔθνη는 이방 개인 혹은 인종그룹이나 문맥상으로는 양자 모두를 지칭한다. ③ ‘온 종족’이라는 용어는 신약에만 18회 언급, 1회만 이방인, 9회는 인종그룹, 8회는 모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④ 헬리어 ‘모든

종족’은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나라를 지칭한다. ⑤ 구약의 모든 민족(창12:3 all the families of he earth)는 인종을 의미한다. ⑥ 이방나라들에 대한 권면, 약속, 기도, 구원계획 등에서 볼 때 신약의 선교는 구약의 연속이다. ⑦ 계시록 15:11, 5:9 등은 인종과 부족을 언급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또한 구약의 이방나라 혹은 열국들을 ‘인종단위의 사람’으로 해석하면서 ‘인종단위의 선교’가 성경적이라고 강조하며,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도 인종단위의 차원에서 선교를 다루었다고 역설한다.³⁴⁾

요하에스 베르쿠일(Johannes Verkuyle), 데이비드 보쉬(David Bosch) 등은 ἔθνη(ethne)를 구약에서 이방나라들을 칭하는 גּוֹיִם(goim)으로 본다. 이런 점에서 그들 ἔθνη(ethne)를 언어, 문화, 사회구조로서의 어느 특정한 종족으로서 해석하는 것을 거부한다.³⁵⁾

성경의 종족(종족)이 개인인지 인종단위인지에 대한 해석은 키텔(Kittel)사전 등의 내용분석에는 다양성이 있지만, 최근에는 인종단위로 기울어지고 있다. 역사적 맥락과 현실의 상황을 통해서도 미전도종족선교의 성경적 타당성은 확실하다.

3. 선교학적 측면에서 본 종족(People) 개념의 역사적 발전과정

근대선교신학의 초석 담음으로써 근대 개신교 선교학의 아버지로 일컫는 구스타프 바르넥(Gustav Warneck 1834-1910)은 그의 저서 ‘복음전도’(E(vangelisch Missionslehre)에서 한 종족을 복음화 하는 집단적인 선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민족교회(Volks Kirche)설립을 선교목표로 삼자고 주장

34) 그가 사도바울의 인종단위 선교의 성경적 근거는 롬15:8-9, 12 등을 들고 있고, 요한서신은 계5:9, 7:9, 14:6-7, 15:4 등을 들고 있다. John Piper. *Let the Nations Be Glad!* (Baker, MI: Grand Rapids, 2003), 182-3.

35) Johannes Verkuyle. *Contemporary Missiology*. (Grand Rapids, MI: Erdmans, 1978); David Bosch. *Transforming Mission*, (NY: Maryknoll, 1991).

32) ἔθνος의 복수형

33) 한정국 편저, 『종족창문으로 본 현대선교 1』, 59-60. 28ff. 참조.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루터파 신학의 두왕국사상을 반영한 것으로써 (1) 서구의 전형적인 가치관인 개인주의를 뛰어 넘어 세계 2/3 지역의 집합적인 사회구조 하에서의 전체적인 복음화를 선교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았다는 강점은 있으나, (2) 민족교회 설립시 따르는 인종주의적, 국수주의적 경향의 교회설립의 위험성을 간과했다는 점과, (3) 성경적인 모델을 따르지 않았다는 약점을 지니고 있다.

1930-1950년에 인도에서 활동하던 영국선교사 와스컴 피켓(J. Wascom Pickett)은 그의 선교활동지역이었던 중부 인도의 134군데 선교기지를 조사한 결과 12년 동안 1%만 성장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 사실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그의 결론은 선교기지 중심의 개인주의적 전도방법이 집합적 사회구조, 카스트제도와 연결되어 있는 인도사회 상황과 맞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하면서 인도와 같은 집단주의적 사회에서는 종족운동(People Movement)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이후에 이 개념은 교회성장학을 재창한 도날드 맥가브란(Donald McGavran)의 이론으로 재정립된다. 맥가브란은 그의 책 『하나님의 가교』(The Bridges of God)에서 서구교회의 전통적인 선교방법인 선교기지적 접근방법을 비판하고 종족중심의 선교(People-Oriented Mission)를 주장하였다. 그는 종족개념을 중심으로 한 선교를 위해서 동일집단원리(HUP: Homogeneous Unit Principle)라는 동일단위의 집단을 전략적으로 사용할 것을 제의하고, 제한된 선교자원을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종족에게 우선적으로 배분하는 수용성원리(receptivity principle) 주장한 것이다.³⁶⁾

이후 랄프 윈터(Ralph Winter)의 주장에 의해 제1차 로잔대회세계복음화대

36) 한정국 편저, 『종족장문으로 본 현대선교 1』, 29-31. 물론 이러한 수용성원리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동일한 선교지에 많은 선교인력과 자원이 집중됨으로써 중복투자라는 비판을 맞게 되고 모든 미전도종족에게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미전도종족 선교로 전환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

회(LCWE³⁷⁾, 1974)에서 미전도종족 선교를 공식적인 선교의 방향으로 결정하게 되었고, 그 후 로잔전략회의(1977), 파타야위원회(1980) 모임, 시카고 미전도종족회의(Unreached Peoples Meeting) 등으로 미전도종족의 개념과 전략이 명료화 되었다. 이 시카고회의에서는 미전도종족을 “종족내 토착교회가 없는 종족”으로 정의하였고, 전 세계 12,000개의 미전도종족에서 인구수 35억이 있음을 밝히고, 이들은 대개 2/3세계에 속해 있으며, 전 세계선교사의 15%만 이곳에서 사역하고 있음을 발표하였다.

물론 WEC 국제총무를 역임하였고, 세계기도정보(Operation World) 발간으로 유명한 패트릭 존스톤(Patrick Johnston)은 독자적으로 전 세계 종족집단을 조사하여 8만 여 개의 세분화된 종족집단 발표하면서, 그 중 12,000개 미전도종족 있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

그 이후 로잔세계복음화위원회(LCWE)에서는 랄프 윈터의 미전도종족 개념이 선교학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하고, 그를 전폭적으로 수용하여 미전도종족 선교를 선교의 새로운 과업으로 받아들였다. 따라서 로잔대회 이후 한 사람을 집단 구성원으로 평가할 때, 단순히 정치적, 경제적 집단개념인 국가의 구성원으로서가 아니라 언어, 혈연, 문화 등 비정치적이면서 종족집단의 한 개인으로 보는 견해가 생겨나고, 여기에 맞추어 선교적 접근을 시도하게 된 것이다.

그 이후 제 2차 로잔대회 마닐라대회(1989)에서는 이를 보다 전략적으로 구체화시켜 AD2000운동³⁸⁾을 주창하였고 이를 성취하기 위한 기도합주회운동과 전문직, 비거주선교전략(NRM) 등이 논의되었다. 이 AD2000 운동은 “2000년까지 모든 종족에게 교회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자”³⁹⁾는 목표를 세워 열심히 사역하다가 AD 2000년 12월 예루살렘에서 발전적으로 해체되

37) Lausanne Consultation on World Evangelization의 약자.

38) AD2000 Movement는 이후에 AD2000 and Beyond Movement로 명칭이 변경된다.

39) “A Church for Every People And the Gospel for every person by AD 2000”

었다. 이 운동은 전 세계 선교기관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등 전략적으로 연결하는 역할⁴⁰⁾을 훌륭하게 수행함으로써 그 기능을 다하고 그 이후의 사역에 발전적으로 공헌하게 되었다.⁴¹⁾

한국에서는 1993년 AAP(입양운동본부)가 발족되면서부터 미전도종족선교운동이 실제화 되었다. 이 운동은 연합운동으로 기독교 21세기 운동본부, 선교한국, 한국선교연구원 등이 중심이 되어 ‘종족단위의 선교’가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동원해왔다.

IV. 미전도종족 선교 전략

일반적으로 미전도종족 선교 전략에는 미전도종족 입양, 도시 미전도종족 선교, 전문인선교, 전방개척선교 등 네 가지가 대표적으로 지목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분량의 제한으로 인해 이 네 가지 전략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한다.

1. 미전도종족 입양 전략

1) ‘미전도종족입양’의 개념

미전도종족 입양운동(Adopt A People Project)이란 기존의 교회들이 개별적으로 혹은 연합적으로 전 세계의 미전도종족들 중 특정한 종족을 영적으로

입양하여서 이 종족이 전도된 종족으로 되어 질 때까지 선교의 책임과 지원을 다 하지는 운동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교회나 단체, 개인이 하나의 미전도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하고 복음이 들어 간 후에도 현지인에 의해 현지 교회가 자생 능력이 있을 만큼 성장할 때까지 관계를 맺는 것인데 관심과 기도, 재정적인 후원과 인적 파송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⁴²⁾ 지역교회들은 각 나라의 종족입양 운동 본부를 통해서 미전도종족의 프로파일을 받아서 기도와 연구, 현지방문 등을 통하여서 입양을 결정하는 과정을 거쳐가게 된다. 입양을 결정하면 입양예배를 드리고 이후로 해당 종족을 위하여 집중적인 기도사역을 하면 현지 단기선교, 현지 장기선교사 지원, 선교사 파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한 종족에 교회의 선교자원을 집중시키는 전략이다.⁴³⁾

종족입양은 교회가 미전도종족의 아이를 데려와서 키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교회나 선교단체가 미전도종족을 맡아서 그 종족 가운데 “자립적이고 생명력 있는 교회”가 세워질 때까지 책임지고 섬기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의 미전도종족을 입양한다는 것은 교회가 하나의 미전도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복음이 들어간 후에도 현지인에 의해 현지교회가 자생능력이 있을 때까지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지속적인 관심과 끊임없는 기도, 재정적인 후원과 인적 파송의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그 종족에 대한 권위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종족의 문화를 존중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을 뜻한다.

종족입양은 마치 어린 아이를 입양한 후 그 아이가 성장해감에 따라 부모가 아이를 돌보는 형태가 달라지는 것과 같이 미전도종족에게도 영적 부모인

40) Strategic Network - Information Network and sharing

41) 출처: <http://islammission.org/news/2001/ne010105.htm> (2014. 7. 30 현재). 정보에. “한국 미전도종족선교 역사와 그 이해,” 『미전도종족: 한국 미전도종족선교 성과·과제 협력』, 174.

42) 조명순. “한국에 통용되는 ‘미전도종족선교’ 관련 용어,” UPMA 편. 『미전도종족: 한국 미전도종족선교 성과 과제 협력』, 187.

43) Ibid. cf. 이현모. 『선교학개론』, (대전: 침례교신학대학출판부, 2005).

모국 교회가 필요한 것과 같이 교회가 미전도종족을 영적으로 돌보는 것도 장기간 헌신 필요하고 미전도종족의 상황과 변화의 양상에 따라 그 역할과 톨봄의 형태가 달라져야 한다. 부모의 역할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져야 하기 때문이다. 종족입양은 다음과 같은 운동을 통해 진행된다.

- (1) 분담운동 - 한 교회가 자신의 교회 규모보다 상대적으로 큰 종족을 입양했을 경우 타 교회와 협력하거나 지역을 분담하여 사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 기도운동 - “입양은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끝난다.”는 말과 같이 입양을 통한 미전도종족 선교전략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 (3) 교회개혁운동 - 미전도종족 입양선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입양한 종족 내에 전도하여 교회를 설립하고, 양육을 통해 제자와 지도자, 그리고 사역자를 길러 자립적으로 재생산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 (4) 연합운동 - 교회와 교회, 교회와 선교단체, 선교단체와 선교단체, 그리고 교회와 현지교회, 교회와 선교사가 협력하여 이루는 사역이다. 지역 교회는 선교에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선교단체와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미전도종족입양'의 목표

미전도 종족 입양 운동의 목표는 모든 종족에게 신속하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그리하여 각 종족 내에 자립적인 교회를 개척하고 궁극적으로는 각 종족을 복음화 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입양 선교는 단순히 한 명의 선교사만을 파송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종족 안에 교회를 세우고 지속적인 종족복음화를 위한 총체적인 선교이어야 하므로 많은 기도와 시간, 재정과 인적 자원이

요구되는 선교인 것이다. 이것은 교회가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담당해야 하는 선교이다.

3) '미전도종족 입양'의 필요성

입양선교의 필요성은 현재 지역교회선교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그 가치와 중요성, 필요성을 알 수 있다.

먼저, 일반적으로 지역교회는 대개 특정한 선교전략이나 목표 없이 선교하고 있다. 또한, 지역 교회는 세계선교 전체에 대한 조망 없이 몇몇 선교사들을 재정적으로나 기도로 도우는 등 선교에 소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지역 교회가 세계선교의 그림을 한눈에 보면서 자신들이 그 한 부분을 실제적으로 감당하고 있다는 확신 없이 소극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이 시대에는 지역교회를 향하여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는 선교전략 요청하고 있다. 전 세계의 선교계는 종족선교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거의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즉 미전도종족에 대한 선교는 현대선교에 있어서 이미 넓은 공감대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전도종족 입양 선교는 선교에 있어서 “방법(how)”의 문제 제시하는 강점이 있어서 지역 교회가 선교에 구체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 준다.

셋째, 입양 선교는 지역 교회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선교전략이다. 입양을 위해서는 지역교회가 입양하는 종족을 잘 알고 처음부터 그 종족에 대한 선교의 전체 과정에 참여하게 되므로 후원하는 선교사와 교인의 일체감 형성하여 선교 시작부터 끝까지 후원 교회 교인들이 참여할 수 있다. 이 선교전략은 교회가 선교주체가 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4) '미전도종족 입양'의 장점

미전도종족 입양 선교는 여러 가지 장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확실한 선교 목적을 설정할 수 있다. 전 세계의 복음화 상태와 복음에 소외된 지역에 집중하여 사역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복음에 소외된 지역과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둘째, 전술한 바와 같이 효과적인 협력선교 가능하다. 종족입양운동은 총체적인 선교사역이다. 그러므로 입양 선교를 위해서는 교회 내 다양한 재능과 은사를 지닌 성도들이 그들의 재능을 십분 발휘하여 거의 모든 교인들이 선교에 참여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셋째, 선교자원의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입양한 종족은 수많은 필요를 요청하고 있고, 지역 교회가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교회 내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을 해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지역 교회의 전 교우들이 협력하여 이 선교에 참여할 수 있다. 다양한 은사 지닌 선교헌신자 활용 가능하다는 것이다.

넷째, 지역 교회는 입양한 종족의 복음화 사역 전반의 과정을 관리할 수 있다. 미전도종족을 입양했으므로 시작부터 지역과 종족의 상황, 그리고 교회설립과정을 체크하고 참여, 관찰 할 수 있다. 또한 선교사들의 지역집중도도 파악할 수 있다.

다섯째, 연구하는 선교를 하게 한다. 입양을 위해서는 종족과 지역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하는데 종족정탐 등을 통하여 선교지에 대한 연구와 지식을 습득하여 그것을 통하여 연구하는 선교를 가능하게 한다.

여섯째, 입양 선교는 지역교회가 선교의 최종적인 주체가 된다. 미전도종족 입양 선교는 지역교회가 시작부터 종결까지 입양한 종족을 케어해야하므로 장기적 계획과 참여가 요청되기 때문에 선교의 최종적인 주체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미전도 종족 입양선교에서 지역교회가 종족입양을 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성경적인 전략이고, 가장 효율적인 선교전략이며, 교회전체가 참여하는 선교이기 때문이다.

5) 입양사역을 위한 준비 혹은 전제조건

이 운동을 지속적이고도 효과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 내 이 일을 위한 '중간 조정자', 혹은 '헌신자'가 있어야 한다. 이 중간조정자는 정보수집, 교회 내 홍보, 교회자체 내 정탐여행준비, 협력기관과의 연결 등을 담당해야 한다. 대개는 선교부목사나 청년 중 선교에 열심인 자가 담당하게 된다.

둘째, 입양을 위해서는 교회가 추구하는 비전을 점검하고, 그 비전에 맞는 종족을 향한 기도가 시작되어야 한다. 또한 그 종족에 대한 자료수집과 아울러 교회 안의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여야 한다. 미전도종족 입양은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마친다.

셋째, 교회지도자들의 마음을 점검하여 지도자들의 합일된 의견으로 이 사역을 시작하고자 하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교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도록 하는 지속적인 교육을 계획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입양선교에 대한 통합된 철학과 계획을 가지고 시작해야 한다.

6) 미전도종족 입양단계

미전도종족을 입양하는 방법들은 "미전도종족의 수만큼이나 많다."고 할 정도로 각 종족이나 교회의 상황에 따라 입양전략이 상이할 수 있고, 다양하다. 물론 입양에는 공통적인 요소들이 있지만 교회들이 일률적으로 따라야 할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미전도종족 입양 선교의 목적은 미전도종족 안에서 '자생적인 교회개척운동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가

달성되기 위해서 각 교회가 하는 일은 다양할 수 있지만 미전도종족 입양에는 불변의 원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각모임이 자신의 책임을 밝히 알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각 교회는 선택사항이 다양할수록 계획 추진이 용이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각자의 입양 전략을 결정해야 한다.⁴⁴⁾

[단계 1] 검증(Verified) - 이 단계는 신뢰할 만한 자료에 의해서 종족 또는 미전도 종족이라고 검증되는 단계이다.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미전도종족으로 판단 가능하도록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이다. 보고된 그룹은 신뢰할 만한 근거에 의거해 증명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이 자료를 토대로 입양여부를 결정한다.

[단계 2] 평가(Evaluated) - 이 단계는 관심 있는 외부 크리스천이 이 종족에게 갈 결단을 할 수 있게 될 만큼 충분한 조사가 완료된 단계로서, 이 단계는 종족 그룹의 외부에서 관심 있는 그리스도인이 복음 전파를 위해 파송될 수 있느냐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완결된 것임을 의미한다.

[단계 3] 선택(Selected) - 과업을 이루기에 충분히 준비된 교회나 선교 기관이 이 종족에게 나가려는 헌신을 하는 단계로서, 이것은 전도사명을 감당하기에 충분하다고 여겨지는 교회, 혹은 선교단체가 한 미전도 종족에 헌신하기로 약속하였음을 의미한다.

44) 입양단계에 관해서는 아래의 자료를 참고하라. (1) 한국세계선교협의회 미전도종족 입양운동본부, 『선교정탐훈련 표준강의안』, (서울: 한국세계선교협의회 미전도종족 입양운동본부, 2000); (2) 안기성, 『미전도종족 입양 선교: 빛의 교회 사례』, UPMA 편, 『미전도종족: 한국 미전도종족선교 성과·과제·협력』 (서울: 미전도종족선교선교연대, 2014), 26-33; (3) 김장욱, “온누리교회 미전도종족 선교,” 『미전도종족: 한국 미전도종족선교 성과·과제·협력』, 22-25; (4) UPMA 홈페이지의 여러 자료와 여러 사례 등을 참조하라 (<http://www.upma21.com>). 구체적인 입양단계에 관해서는 부록 참조.

[단계 4] 개입(Engaged) - 타문화적 사역자에 의한 최초의 현지 활동은 복음화되고 있으면서 문화적으로 자생력 있는 교회를 세우려는 교회 개척 계획으로 부터 시작된다. 이것은 타문화권 사역자들에 의해 현지에서 처음으로 현장 사역을 통해 토착교회를 세우려는 의도로 시작되는 단계이며 아울러 스스로 전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는 단계이다.

[단계 5] 파송(Sending) - 토착교회가 그들 자신의 선교사들을 타문화권으로 보내기 시작하는 단계를 말한다. 이것은 복음화의 최종단계로서 파송이 어느 정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그 종족이 복음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⁴⁵⁾

이와 같이 미전도종족 입양 선교전략은 주로 지역교회가 담당하여 선교의 최종 주체가 되고 교회 내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고 활용할 수 있는 대단히 효과적이고도 효율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2. 도시 미전도종족 선교 전략

현대에 들어 전 세계는 급격한 도시화의 추세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1900년에 비해 2014년도 도시인구는 13.6배 증가한 데 반해 농촌인구는 2.44배 증가에 그치고 있다. 전체 인구증가가 3.8배 증가했음을 감안하면 농촌인구증가율은 부(負)의 공헌을 하고 있는 데에 반해 도시인구증가가 전체 인구증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⁴⁶⁾ 도시와 농촌의 인구비율을

45) 출처: <http://www.upma21.com> (UPMA, 2014.7.30. 현재).

46) 농촌 인구증가율이 전체 인구증가율에 못 미치고 있다는 의미이다. 1970년을 기준으로 할 때에는 통계적으로 또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 1970년에 비해 2014년에는 전체 인구가 전체 2.81배 증가하였는데, 그 중 도시 인구는 4.45배 증가하였고, 농촌 인구는 1.44배 증가에 그치고 있다. 역시 농촌 인구증가율이 전체 인구증가율보다 낮다. IBMR, “Annual Statistical Table on Global Mission: 2014.” *International Bulletin of Missionary*

살펴보면 도시화의 추세는 더욱 명확해 진다. 농촌과 도시의 인구비율은 1900년도 6:1이었는데 1970년도에는 1.7:1, 2014년도에는 1:1.13으로 2008년 이후 도시 인구가 농촌인구보다 많아지게 되었다.⁴⁷⁾ 특히 선진 제 국가에서의 도시 인구가 1970년 이후 정체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현대에 들어 제3세계 도시인구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⁴⁸⁾

1) 도시인구 팽창과 선교

그러므로 오늘날 도시화는 전 세계적으로, 특히 제3세계 여러 나라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그것은 도시와 농촌의 격심한 차이를 낳는 동시에 도시의 급격한 팽창이 농촌의 황폐화를 대가로 지불하기 때문이다. 제 3세계 나라에서는 농업부문이 도시에 집중되고 이에 따른 신흥도시가 생겨남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차이는 산업부문과 농업부문의 심각한 불균형으로 나타난다. 또한 이농현상과 더불어 급격한 도시인구의 증가는 사회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환경, 복지, 위생, 문화에 걸쳐 혼란과 괴리를 낳아 지역 간 혹은 계층 간의 이질화를 초래하여 정치적 문제로까지 번지는 일도 있다.⁴⁹⁾

반면에 서구의 도시화는 비도시화현상(deurbanization)에 직면하고 있다. 비도시화란 도시화 현상이 주변 교외로 확장되다가(suburbanization), 어느 시점에서 도시화 현상 자체가 정체되어 버리는 것을 말한다.⁵⁰⁾ 이렇게 되면

Research. (January 2014). 29.

47) 숫자로는 도시인구가 232백만(1900년), 1,353백만(1970년), 3,820백만(2014년)으로 증가하였고, 농촌인구는 1,387백만(1900년), 2,343백만(1970년), 3,387백만(2014년)으로 증가하였다. *Ibid*.

48) 서구세계의 도시화는 1990년도 기준으로 73%이며 인구는 9억 정도가 살고 있다.

United Nations. *World Urbanization Prospects 1990*. (New York: UN, 1991). p. 2.

49) 한상복, 이문웅, 김광익 공저. 『문화인류학개론』.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5); 김한준, 백옥인, 홍인욱 외 저. 『현대 도시 문제의 이해』. (서울: 한길사, 1989). 참조.

50) Leo Klassen. *Regional Policy*. (Saxon House, 1980), 188. 김성태. 『세계선교전략사』.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4). 180, 에서 재인용.

초창기에 형성된 대도시들은 몇몇 특수 기능으로 명맥을 유지하지만 주거지역은 황폐화되고 이민자들이나 저소득의 빈민 계층에 의해 슬럼화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이들이 직면하고 있는 빈곤 문제와 그로 인한 각종 문제는 이미 서구 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⁵¹⁾

2) 도시 문화인류학의 시각

도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흔히 행정학, 경제학, 사회학 등의 학문들이 동원되지만 문화 인류학의 개입을 특히 필요로 하는 이유는, 문화 인류학이 또 다른 시각에서 도시 문제에 접근하며, 문제의 진단과 해결책을 구하는 데에도 독특한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이다.⁵²⁾

첫째로 문화 인류학은 도시 문제를 다루는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문화와 사회의 제요소가 각기 별개로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관되어 하나의 체계를 이루고 있다는 시각을 제공해 준다. 만약 도시 문제를 어느 한 측면, 즉 경제적인 면, 위생환경의 면, 혹은 범죄 문제라는 측면에서만 보고 그에 따른 사회심리적 해석만 한다면 큰 오류를 초래할 수 있다.

둘째로 문화 인류학에서는 ‘민족성’에 대한 개념과 연구를 도시 연구에 응용한다. 아프리카에는 같은 부족 출신이 도시의 한 지역에 집단거주지역을 이루며, 남미에서는 동향출신이라는 점을 바탕으로 하여 도시로의 이주민주거유형을 결정한다. 뿐만 아니라 같은 도시라도 부유층과 빈곤층 또는 판자집, 무허가 주거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주민간에는 서로 상대방을 이민족 대하듯이 보고 지낸다. 그리하여 자민족 중심주의나 계급 중심적인 시각으로 남을 보며, 그들이 함께 동일한 도시 사회의 구성 요소임을 무시함으로써 사회적 통합이 위협받을 수가 있다. 지역적, 사회 및 경제적 배경 또는 문화적

51) Roger Greenway and Timothy Monsma. ed. *Cities: Mission's New Frontier*.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92). 참조.

52) 한상복 외. 『문화인류학개론』, 441-443.에 실린 내용을 수정, 정리한 것임.

요소를 서로 달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지는 도시에서 사회 및 문화적 통합을 위해서는 이러한 종족성의 이해와 문화 상대주의적 입장이 필요한 것이다.

셋째로 문화 인류학에서는 도시와 농촌이 상호 분리되어 있는 두 개의 세계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관점을 취하고 있다. 흔히 도시는 직업의 분화, 경제적 이해타산에 의한 인간관계 성립의 원리가 지배하며 경쟁적이고 적대감과 폐쇄적인 반면, 농촌은 사회, 경제, 문화의 제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동질적인 사람들이 감정과 대면의 관계를 맺고 있다고 구분한다. 그리고 농촌 사람이 도시로 와서 도시 문화를 흡수하고 농촌 문화를 잊어버린다고 말한다. 이러한 이분법적 시각은 농촌이나 도시의 어느 것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도시와 농촌은 비록 그 특유의 분위기와 문화적 배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도농(都農)의 경제와 문화적 관계의 성격이 우선적으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며, 농촌으로부터의 이주자가 도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그들의 문화적 자원을 어떻게 이용하여, 도시의 성격에 의해서 원래의 문화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넷째, 일반적으로 도시라고 하면 어디든지 같은 성격인 것으로 간주하기 쉽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 도시마다 그 성립 배경, 과정, 구성 인구나 산업 및 문화시설, 주위 세계와의 관계에서 서로 다르다. 따라서 비교 학문적 관점에서의 도시 연구가 필요하다. 즉 도시의 형성과 구성이 (1) 식민 통치를 원활히 하기 위한 식민 정부의 고안에 의해 계획적으로 성장한 것과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 (2) 또는 상공업으로 발달한 것과 문화 및 교육 중심지로 성장한 것, (3) 인구구성이 단일 종족 혹은 동일 지역 출신의 사람들로 된 것과 여러 부족이 혼합되어 각각 조그만 집단을 형성하여 한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도시 등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인구의 성장이 도시 내의 자연증가에 의한 것과 이촌향도(離村向都)라는 사회적 요인에 의한 증가인지에 따라서도 다르다. 도시의 이러한 특성에 따라 사람들의 적응

기제로서의 도시 사회의 유형은 다양해진다. 이에 대한 적절한 분석과 파악을 통해서 도시 문제는 효과적으로 해결될 방안이 마련될 것이다. 또한 주거환경, 생활유형의 변화에 따른 전통적 문화의 기능과 의미도 달라진다.

3) 도시 선교 전략

김성태는 성경적인 도시 선교 유형으로서 변혁과 신율적 모델 위에서 도시 선교 학자들과 전문가들에 의해 논의되어지는 제 선교전략들을 살펴 공동체적 선교전략, 동질단위집단을 통한 선교전략, 사회봉사 구조갱생을 지양하는 총체적인 선교 접근 전략, 지역적인 협력을 통해 교회 설립, 도시개발 선교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 성숙한 지역 토착교회를 뿌리 내리는 일 등을 제시하고 있다.⁵³⁾

첫째, 공동체적 선교전략이다. 도시 선교는 개인적인 차원으로 접근해서는 불가능하다. 도시 자체가 수많은 하위문화와 제도((subcultures, systems and institutes)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개개인은 도시 구조와 연관되어 자신의 동질성, 역할, 소속, 성취, 정서적 안정감 등 인간의 기본 욕구들을 충족시키면서 생활해 나간다. 따라서 도시 안에 있는 개개인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말씀으로 계속 양육, 훈련하며 교회를 설립하고 확장하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의 회심뿐 아니라 그들이 소속된 하위문화와 각종 제도들을 고려하여 구조적인 변혁까지 일으켜야 한다. 이런 토대 위에서만 도시 상황 속에서 진정한 토착 교회가 뿌리를 내리며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나타낼 수가 있다. 비브 그릭(Viv Grigg)은 도시 구조 안에 묶여 있는 개개인을 회심시키며 도시 구조에 하나님 나라 확장 차원의 변혁을 일으키려면 진정으로 헌신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려는 제자들의 공동체가 우선적으로 결성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⁵⁴⁾

53) 김성태, 『세계선교전략사』, 194-200. 참조.

공동체적 접근 형태는 각 도시의 특성에 따라 다양할 것이다. 어느 특정한 전략적인 지점에 본부 교회를 세워놓고 다양한 하위 문화 속의 도시 계층에서 가정 교회 형태의 공동체적 모임을 결성해 나가는 방법도 있을 것이며, 처음부터 공동체적 교회를 형성하고 가족적인 유대감과 결속을 심어 주어 도시 구조 속에 개개인의 필요들을 성경적인 방법으로 채워 주는 형태도 있을 것이다. 이런 공동체적 선교 접근은 특히 빈부의 격차가 심하고 도시 병리 현상이 심각한 세계 2/3지역에서의 도시 선교에 더욱 효율적이고 중요한 선교 전략이 될 것이다.

둘째, 동질단위를 중심으로 한 선교전략이다. 도널드 맥가브란이 이 방법을 세계적인 선교 전략으로 대중화하였지만 도시 선교 전문가들에게 있어서도 거의 공통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선교 전략이다. 도시는 복합 문화, 다인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개 문화와 인종의 특성은 도시의 구조적 상황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상호 유기적으로 결속되어 있고 심지어는 공동 주거군을 형성하기도 한다. 이렇듯 이러한 동질 단위의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이려고 하는 결속력은 고향에 뿌리박힌 문화적, 정서적 귀소 본능에서 나오는 것이며, 여기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고 상부상조함으로써 서로 서로 도시의 삶에서의 생존력을 높이려는 시도이다. 하비 콘(Harvey Conn)은 도시의 복합 문화 구조를 무시하고 인종적인 결속력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선교적 접근은 실패할 것이라고 경고를 발하고 있다.⁵⁴⁾

동질 단위의 선교 전략은 도시의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운용될 수 있다. 단순히 어느 특정 종족 중심의 교회를 설립한다는 것이 아니라 가족, 친족, 직업, 취미, 생활 수준, 지역적 근린성 등의 사회적 결속력을 고려하여 다양한 성경 공부 모임과 봉사, 구제 선교 기구를 교회 안에 설치하고, 상호간에

54) Viv Grigg. *City of the Urban Poor*. (Monrovia: MARC, 1992). 25-27.

55) Harvie Conn. *A Clarified Vision for Urban Mission: Dispelling the Urban Stereotypes*. (Grand Rapids, MI: Zondervan, 1987), 58.

소속감과 효율적인 친교 분위기를 형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숙화 하여 다른 동질 단위의 그룹들을 섬기고, 도시 안에 있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복음화하는 데 효과적인 접촉점의 역할과 양육, 훈련의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다. 오늘날 세계 2/3지역의 도시들의 복합적인 문화와 다인종 상황은 바로 이러한 동질 단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선교 전략을 요청하고 있다.

셋째, 사회봉사와 사회구조개선을 지양하는 총체적인 선교전략이다. 도시의 복합성과 구조적인 특성은, 개인의 회심 차원의 선교 목표를 설정해서는 효과적인 도시 복음화를 기대할 수 없다. 대부분의 도시 선교 전문가들은 개인의 회심뿐 아니라 구조적인 개선까지도 도시 선교를 위해서 요청하고 있다. 하비 콘은 교회 중심의 정적인 목회 프로그램만을 가지고서는 도시인들에게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는 도시인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식하고 성도의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도시의 모든 영역에 교회가 적극 참여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고 하여 교회의 총체적인 사역(holistic ministry)의 중요성을 논한다.⁵⁶⁾ 그린웨이(Roger Greenway)는 도시의 구조적인 특성을 인식하고 개인의 회심 차원의 선교뿐 아니라 도시 구조 자체도 변혁이 되어서 하나님의 왕권이 수립되고 도시인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을 증거 하는 총체적인 선교가 수행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린웨이는 이러한 선교를 하나님의 왕국 전망(kingdom prospective)을 가지고 수행하는 선교라고 호칭하며 교회가 도시인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리하여 도시인들의 전인적인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시는 삶의 근본적인 변혁이 개인적 차원뿐 아니라 구조적인 차원에서도 일어나야 한다고 주장한다.⁵⁷⁾

이런 점에서 도시 빈민의 종속적인 구조악의 문제, 영적이고 정신적인

56) *Ibid.* 58-72.

57) Roger Greenway. *Apostles to the City: Biblical Strategies for Urban Missions*. (Grand Rapids, MI: Baker, 1978). 15-28.

황폐함 등에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 차원에서 구체적인 선교 프로그램을 가지고 도시인들의 삶에 참여하여 개인적인 변화뿐 아니라 구조적인 변혁도 일으켜야 한다고 한다.

세계 2/3지역의 대다수의 도시 상황을 생각할 때 효율적인 도시 복음화를 위해서 총체적인 도시 선교가 필요하다. 세계 2/3지역의 정부 행정 관리들은 도시 문제의 심각함을 인식하고 도시 개발과 변혁 차원의 교회의 총체적인 선교 수행을 환영하고 심지어는 복음에 적대적인 국가에서도 도시 선교의 총체적인 선교 프로젝트에 호감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 한국 교회는 도시와의 특수 상황을 인식하고 전략적인 측면에서 선교 방법을 개발하고 세계 2/3지역 도시 상황 하에서 총체적인 선교를 수행한다면 도시 복음화를 통한 세계 선교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는 지역적 협력을 통해 교회설립, 도시지역개발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도시는 공간적인 차원에 제한이 있으며 개발의 성격이 정치적이고 총체적이다. 도시 안의 아무 지역이나 교회를 설립할 수 없고, 도시인의 필요를 채워 주는 개발선교 프로젝트는 개교회나 선교 기관의 차원에서 수행되기에는 경제적인 부담이나 선교의 부작용이 뒤따를 위험성이 있다. 도시에 대한 철저한 연구와 더불어 전략적인 지점에 교회를 설립하고 도시를 변혁시키기 위해서는 특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 선교에 참여하는 선교 단체들의 협력과 연합 속에서 공동의 선교 프로젝트를 개발하여 인력, 프로그램, 재정 측면에서 함께 참여하는 사역이 필요하다.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교단적인 차원이나 선교 기관들의 차원에서 도시 선교 위원회 결성이 요청되고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함께 연구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협력 정신이 요구된다. 지역 정부와의 불필요한 긴장 관계를 지양해야 한다. 도시의 구조악의 문제는 기득층의 특권이나 탐욕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 선교는 종종 오해나 편견, 폄박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도 도시 선교를 수행하는 선교 단체들은 서로간의 연합이 필요하며

지역 정부와의 불필요한 오해나 긴장을 감소시키며 도시 개선과 변혁에 대한 확신과 그리스도인의 순수한 사랑을 납득시키고 전달해야 한다. 여기에 지혜가 필요하며 적극적인 선교 협력이 요청되는 것이다.

다섯째, 성숙한 지역토착교회를 뿌리 내리는 일이다. 도시인의 필요를 채워 주고 도시 구조를 갱생시키는 사역의 궁극적인 목표는 토착 교회를 통한 하나님 나라 확장이다. 아무리 지역개발에 참여하고 사회봉사를 하여도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하고 제자화 하는 일이 결여되어 있다면 그것은 인본주의적인 봉사에 불과할 것이다.

도시 선교를 수행함에 현지 교회 지도자들이 선교사들을 의존하게 되거나 믿음에 성장이 없다면 그것은 실패할 위험성이 높다. 성숙한 토착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도시선교사역은 도시 복음화의 결실을 맺을 수가 없는 것이다. 선교사들은 총체적인 선교를 수행할 때 현지 그리스도인 지도력을 배양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며 궁극적으로 현지 토착교회가 도시선교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자생력을 키워 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시 선교 프로젝트에 현지인을 적극 참여시켜야 하며 지도력을 배양하고 도시 선교의 궁극적인 주체가 현지 지도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여기에 도시 선교사역의 사활이 달려 있다.

4) 도시 미전도종족 선교전략

한국은 미전도종족 선교 초반기부터 현실적이고 적절한 관점에서 ‘종족과 도시’를 연결하여 선교 대상인 종족들과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적 조건과 상황을 함께 통찰하여 선교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다양한 현장에서 종족들의 실재를 이해하고 그들에게 적합하게 선교하기 위하여 UPMA(구 KAAP)를 중심으로 98년에 ‘관문도시를 통한 종족선교’, ‘도시에서의 미전도종족발견하기 및 전략적 사역’등 ‘종족과 도시’를 통한 미전도종족 선교를 제안하면서

선교현장과 선교단체에 큰 반향과 공감을 일으키게 되었다. 이 관점은 종족과 종족의 문화에 너무 매몰되어 그들을 둘러싼 환경과 변화를 놓치고 사변적이고 데이터 위주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한국의 미전도종족선교운동에 효과성과 전략성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게 된 것이다. 또한 선교의 전략적 우선순위와 그 중요성에서 제기된 미전도종족 선교를 마치 오지나 정글의 선교로만 오해하게 하여, 현실적 주류세계의 거대 미전도종족집단인 무슬림들, 힌두교도들, 인도차이나의 불교도집단들이 전 세계적으로 인구 이동 및 이주하고 있는 의미 있는 중요한 현상을 포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⁵⁸⁾

도시 내에서 미전도종족 선교의 기회를 이용하려면 우선 도시가 어떤 ‘종족집단’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⁵⁹⁾ 그리고 그들을 위한, 그들에 맞는 선교전략이 세워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그들을 찾아내야 하고 그 정체를 밝히고, 그들의 삶과 문화를 이해해야 한다. 즉, 종족집단의 ‘연구’는 선교적 시도의 출발점이다.

그리고 나서 이들 도시 내 각 미전도 종족집단에 타문화권 선교사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 각 종족집단간에는 인종적 문화적 장벽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 내에 어떤 믿는 종족집단이 있다고 해서 그들을 통해 자연스럽게 다른 종족으로 복음이 전달될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또한 어떤 도시에 규모가 있는 교회가 있다고 해서 도시 내 모든 종족집단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으로 기대해서도 안 된다.

도시 내에서 한 종족집단에 교회가 세워진다면 그들을 통해 미전도종족 모집단을 바라보아야 한다. 교회에서 현지 사역자를 훈련시켜서 자신들의 동료가 있는 곳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것이다. 그들은 어떤 선교사나 다른

현지 사역자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 사역자는 모집단과 사회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교회개혁 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한 사회변화를 도모해야 한다. 도시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도시교회의 책임은 각계각층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도시를 통한 미전도종족 선교의 한 가지 중요한 목표는 설립된 교회를 통해 각 종족 집단 내에서 정치계, 경제계, 교육계, 언론계, 그리고 대학생, 청소년 등 각 분야 속에서 복음으로 빛을 밝힐 지도자들을 길러내는 것이다.

3. 전문인 선교 전략

전문인선교(Tentmaker Mission)는 현대선교에 있어서 대부분 미전도종족으로 남아있는 이슬람권, 힌두권, 불교권, 공산권 등 전통적인 목회자 선교사의 진입이 불가능 한 상황 가운데 복음의 돌파(breakthrough)를 위해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전략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는 현대의 선교전략이다. 전문인선교는 다음의 몇 가지 이유에서 현대의 가장 절실하고도 중요한 전략으로 간주되고 있다.⁶⁰⁾

첫째,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의 수는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으나, 선교사의 파송은 이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목회자 선교사가 아닌 전문적 직업을 지닌 자들을 선교사로 동원하지 않고는 남은 과업(TTR & FTT)⁶¹⁾을 완수하기 힘든 상황이다.

둘째, 목회자 선교사의 입국을 제한하는 폐쇄지역(접근제한지역: RAN)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은 기독교 선교를 위해 창의적인 방법으로 접근(창의적 접근지역: CAN)할 수밖에 없다.⁶²⁾ 근래에 들어 미전도종족 입양, 전방개

58) 정보에. “한국의 미전도종족선교 어디까지 왔나? — 서구의 창조적 변용과 발전.”

출처: <http://www.upma21.com> (2014.7.30. 현재)

59) 한수아. “도시를 통한 미전도종족 선교의 기회와 중요성.” 출처: <http://www.aap.or.kr/impac/article/article-10.html> (2002.2.1. 현재)

60) 이현정. 『평신도 전문인 선교』 (서울: 성광문화사, 2010), 참조.

61) TTR: The Task Remained. FTT: Finishing The Task.

척선교 등 미진도종족의 복음화를 위해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지역은 목회자 선교사의 입국과 활동이 더욱더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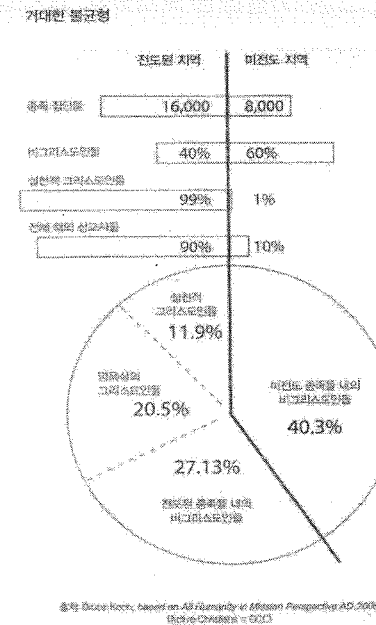
[표 1] 선교사 입국 금지 국가 수

년도	주요선교행사	금지국가수	인구, 비율 등
1974년	제1차 로잔대회 시	38개국	
1989년	제2차 로잔대회 시	86개국	
1995년	GCOWE 국제대회	119개국	38억(세계인구의 65%)
2000년	AD 2000 시점		전도대상의 83% 이상
2010년	제3차 로잔대회 시	148개국 64개국(심각)	49억(세계인구의 70%)

출처: 이현정(2010). 미주 기독교일보(2009.12.27)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양한 신분을 가지고 선교제한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전문인 사역자의 대량동원”이 전략적인 과제가 되었고 잘 알려진 세계 모든 국제적인 선교단체들은 이미 전문인선교사의 동원과 훈련, 배치를 통하여 복음에 적대적인 창의적 접근지역에서 많은 활동과 결실을 보이고 있다.

62) 선교접근 제한지역(RAN: Restricted Access Nations)의 95%이상은 창의적 접근지역(CAN: Creative Access Nations)으로 분류되고 있다. 즉, 선교접근 제한지역의 선교를 위해서는 창의적인 선교전략을 사용 할 수밖에 없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전문인선교이다.



[그림 6] 큰 불균형(2010)

출처: Winter, Ralph D. & Bruce A. Koch. "Finishing the Task: The Unreached People Challenge," Ralph D. Winter & Bruce C. Koch. ed. Perspectives on the World Christian Movement. 4th ed. (Pasadena: William Carey Library, 2009), 543.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교사의 배치 면에서는 현재 선교사의 분포는 전체 선교사의 90%가 이미 선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고, 10% 정도가 복음을 기다리는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형편이다.⁶³⁾

셋째, 종족과 문화의 장벽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대부분의 전문인 사역자들은 평신도들이다. 그들은 자기 직업의 경력위에 선교훈련과 사역경험으로

63) 정확하게는 각각 90.4%와 9.6%이다. 랄프 윈터와 브루스 코흐는 더 적게 보고 있는데 그들은 각각을 97.6%와 2.4%로 보고 있다. Ralph D. Winter & Bruce A. Koch. "Finishing the Task: The Unreached People Challenge," 4th ed. 19.

매우 용의주도하게 선교제한 지역에서 전문직을 사용함으로써 효과적인 인간관계와 복음사역을 개척한다. 선교제한 지역에서는 목사 자신도 유학생, 회사주재원, 교수, 사업가, 사회복지사 등 또 다른 직업신분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사무엘 헌팅턴은 인도나 파키스탄 등의 국가에서는 마을이나 국가단위 혹은 부족단위의 집단적 선택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편적이어서 서구 기독교의 개인적 의사결정은 사회적 사망선고를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넷째, 국내의 경제적 문제도 전문인선교사의 필요성을 요청하는 상황이다. 많은 교단 선교부·독립선교회·지역교회의 선교책임자 및 목회자들과 선교 신학자들은 국내 환율상승으로 인한 선교지원금문제가 심각함을 지적하고 있다.⁶⁴⁾ 전문인선교사가 어느 정도 현지에서 자비량 할 수 있으면 선교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섯째, 이슬람, 힌두교, 불교 등 세계의 주요 타종교, 공산주의의 도전과 세속주의의 영향으로 복음이 도전을 받고 있다. 이런 나라에서는 기독교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으로 인해 목회자가 진입할 수도 없고, 현지인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길도 없다. 풀뿌리 현지인들에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현지에 직업적 전문성이 없는 목회자 선교사가 그들에게 다가가기 힘들다. 직업이나 기술, 비즈니스로 그들에게 접근하면 보다 쉽게 효과적이고도 효율적으로 다가가서 사귀고 친구가 되어 복음전할 수 있는 기회를 쉽게 가질 수 있다.

여섯째, 기독교에 배타적인 타종교와 신민족주의 강화로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선교인력의 과실이 요청되는 상황이다. 이들의 경우 서구종교로 인식되는 기독교와 기독교사역에 대해서는 매우 배타적이며 적대적이다. 그러나 이들 나라의 대부분은 경제개발을 지상과제로 산고 있으므로 자국에 없는 전문적인 기술을 보유한 전문인에 대해서는 호의적이고 개방적이다. 이러한

64) 100만원을 US\$로 바꿀 경우 환율이 1,000일 때 \$1,000을 바꿀 수 있으나 환율이 1,500이면 \$667밖에 바꿀 수 없다. 그만큼 한국화폐의 가치가 떨어져 선교비용이 증가한다.

국가에 목회자 선교사의 사역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은 목회자 선교사들도 동의하는 바이다.

일곱째, 공산권 몰락, 개방정책과 민족주체성 확립추구 등 국제정치적 변동으로 신민족주의적 상황에서 선교사의 신분확보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접근제한지역의 선교에 있어서 장기비자의 획득이 매우 중요한데 직업적 전문성이 있는 전문인의 경우 비자의 획득이 보다 용이하다(passport skill). 사도 바울도 비록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것이긴 하지만 그의 로마 시민권을 선교에 심분 활용하였다. 선교사가 자기에게 주어진 직업적 전문성을 자신의 사역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여덟째, 급격한 도시화 현상으로 전문인선교사의 사역 가능성과 범위가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다. 도시빈민, 지역사회개발, 장애인사역, 아동사역, 노인사역, 도시 내 종족사역, 지역의료교육(CHE)⁶⁵⁾ 등 도시 내에서는 목회자가 할 수 없는 전문인 사역의 영역이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나라에서는 다양한 전문성을 지닌 다양한 전문인을 요청하고 있다. 목회자 선교사 보다 전문인 선교사가 해야 할 일이 훨씬 많고 현지인들도 더 환영한다.

아홉째, 기아, 빈곤과 질병으로 사망인구 증가하고 있어서 이들을 실질적으로 도우는 사역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전문인이 목회자보다 더욱 필요하고, 현지인들과 접촉이 용이하다. 이런 곳에서는 의사나 간호사, 컴퓨터 전문가, 교사, 농업기술자 등 그들의 시급한 필요를 채워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요청하고 있으며 이들이 동시에 기독교 사랑을 실천하면 보다 그들에게 용이하게 복음을 제시 할 수 있다.

한국전문인선교협의회(KAT)에서는 ‘전문인선교’를 “전도종족을 포함한 창의적 접근지역(CAN)이나 여타 선교지역에 개인 신분 고유의 기능이나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고 교회 개척 사업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수행하면서

65) Community Health Evangelism의 약자. Community Health Education을 말하기도 한다.

자기의 직업이나 기능에 속한 문화 분야를 기독교적으로 혁신시키는 일련의 사역행태"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전문인선교사'는 "전문인선교의 개념을 가지고 특정 선교지에 대한 비거주 혹은 중장기 거주형태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을 일컬으며 "원칙적으로 본국에서의 과송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평신도뿐만 아니라 정규 신학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도 전문인 사역 형태를 띠고 선교활동을 하고 있다면 이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KAT의 정의는 전문인선교사를 반드시 창의적 접근지역에서 일하는 선교사로만 한정시키지 않고, 이미 선교사 허입이 허용되거나 현지 교회가 활성화되어 있는 곳에서도 사역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근래에는 로잔비즈니스선교위원회(2004)가 '선교로서의 비즈니스'(BAM: Business as Mission)를 주창함으로써, 비즈니스 자체가 그 사회의 일자리창출과 영적자본 확대를 통해 빈곤을 해결하고, 주민들의 후생을 증대하는 선교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비즈니스 등을 통한 전문인선교 이외의 방법으로 미전도종족 지역에 들어가거나 선교학적 돌파를 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4. 전방개척선교

근래에는 미전도종족과 미전도 지역을 동시에 고려하여 전방개척지역을 설정하고 그 지역에 있는 미전도종족 선교에 초점을 맞추어 선교전략을 구상하려는 접근법이 대두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시도가 전방개척 선교전략이다.⁶⁶⁾

1) 전방개척선교 정의와 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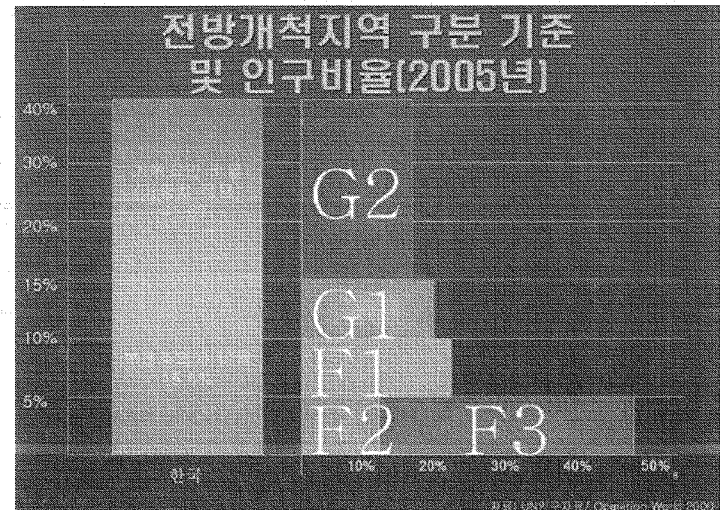
전방개척선교는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 비전을 실현하는데 장애가 되는

66) 한정국 편저, 『종족창문으로 본 현대선교 1』, 105 ff.

것들을 식별하고, 그것들을 극복, 해결하여 비전 실현을 가속화 하는 총체적인 노력을 일컫는 선교전략적 용어이다. 전방개척선교의 궁극적 비전은 성경적인 선교운동을 통해 모든 종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영광을 돌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아직 논의 중에 있는 선교전략적 개념이다.

2) 전방개척의 관점에서 본 선교지

근래에는 선교지를 일반선교지(G: General Mission)와 전방개척선교지(Frontier Mission)으로 구분한다. 그 국가의 복음주의자의 비율을 사용하여 그 비율이 10%이상일 국가를 일반선교지, 10%이하인 국가를 전방개척선교지로 구분한다.



[그림 7] 일반선교지와 전방개척선교지

출처: 한국세계선교협의회. 『전방개척선교』, (서울: 한국세계선교협의회, 2010).

일반선교지 중에도 전체 인구 중 복음주의자 비율이 15% 이상인 지역을

G1, 10~15%인 지역을 G2로 칭한다. 이러한 지역에는 목회자가 들어가거나 현지인 스스로 목회자를 양성할 수 있는 지역으로 선교사는 현지인들이 할 수 없는 부분만 담당하면 된다. 전방개척선교지도 복음주의자의 비율이 10-5%인 지역은 F1, 5% 이하인 지역을 F2, F3로 구분하는데, F2는 복음주의자들의 비율은 낮으나 박해가 없거나 거의 없는 지역을 일컫고, F3 지역은 박해가 있는 지역을 지칭한다. (그림 7 참조) 한국이 복음주의자의 비율이 15.5%인데 이를 기준으로 구분한 것이다.

3) 개척지수에 따르는 국가 리스트

- **G2** = 일반선교지역으로 복음주의 자 비율이 **15.5%** 이상인 경우
미국 / 몬테라트 / 에티오피아, 잠비아, 탄자니아, 우간다, 나이지리아, 콩고민주공화국, 르완다, 부룬디, 케냐,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말라위, 앙골라, 짐바브웨,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와질랜드, / 칠레, 니카라과,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아이티, 온두라스, 푸에르토리코, 자메이카, 파나마, 버뮤다, / 뉴질랜드, 통가, 솔로몬 제도, 버진아일랜드(미국령), 버진아일랜드(영국령), 케이맨 제도, 피지, 미크로네시아, 바누아투,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다, 바베이도스, 세인트키츠네비스, 투르크 카이코스 제도, 팔라우, 파푸아뉴기니, 바하마, 마셜제도, 안티구아바부다, / 남한, 필리핀,
- **G1** = 일반선교지역으로 복음주의자 비율이 **15.5%-10%**, 가중치부여 기독교인이 더 큰 경우
크로아티아,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덴마크, 볼리비아, 벨로루시, 불가리아, 오스트리아, 벨리즈, 독일, 그린란드, 아일랜드, 안도라, 핀란드, 상트메프린시페, 루마니아, 맨 섬(영국 아래), 영국, 폴란드, 포르투갈, 레위니옹, 네델란드령 앵틸레스, 우크라이나, 슬로바키아, 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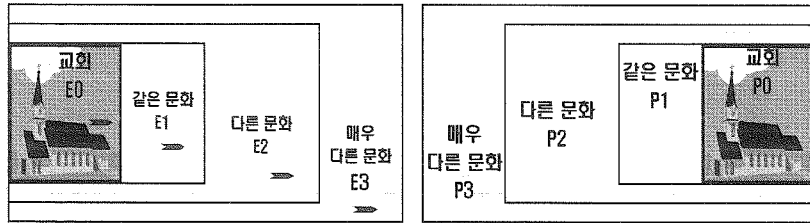
셸, 스위스, 세인트헬레나, 스웨덴, 슬로베니아, 산마리노, 세인트루시아, 모나코, 몰도바, 바티칸시티,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지브롤터, / 차드, 콩고, 가이아나, 적도기니, 가나, 가봉, 보츠와나, 수단, 레소토, 나미비아, 마다가스카르, 트리니다드토바고, / 캐나다, 생피에르 미클롱, / 아르헨티나, 브라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케이프베르드 제도, 도미니카, 도미니카 공화국, 에콰도로, 프랑스령 기아나, 페루, 파라과이, 멕시코, 베네수엘라, 아루바, 과들루프, / 호주, 투발루, 웰리스후투나 제도, 나우루, 마르티니크, 몰타, 모잠비크, 사모아, 뉴칼레도니아, 키리바티, / 아르메니아, 동티모르민주공화국

- **F1** = 복음주의 자 비율이 **5-10%**인 경우 -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 미얀마(버마), 싱가포르, 중국 / 라이베리아, 모리셔스, 부르키나파소, 카메룬, 코트디부아르, 토고
- **F2** = 복음주의 자 비율이 **0.5%**이고, 박해 지역이 아닌 경우 - 네덜란드, 벨기에, 스페인, 프랑스, 리투아니아, 러시아, 마케도니아, 알바니아,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세르비아, 체코 공화국, 키프로스 / 대만, 말레이시아, 몽골, 일본, 캄보디아, 태국 / 그루지아, 레바논, 이스라엘,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 (모로코 아래), 감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니제르, 말리, 베닌, 서부 사하라, 세네갈, 시에라리온 / 수리남, 우루과이
- **F3** = 복음주의 자 비율이 **0.5%**이고, 박해지역인 경우(**41개국**) - 북한, 인도네시아, 라오스, 베트남, 브루나이 / 네팔, 부탄, 몰디브,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 아제르바이잔, 아프가니스탄, 우즈베키스탄, 터키,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에미리트, 예멘,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란, 카타르, 쿠웨이트 /

리비아, 모로코, 모르타니아, 알제리, 이집트, 소말리아, 에리트리아, 튀니지 / 코모로 제도, 쿠바

4) P등급, E등급과 전방개척선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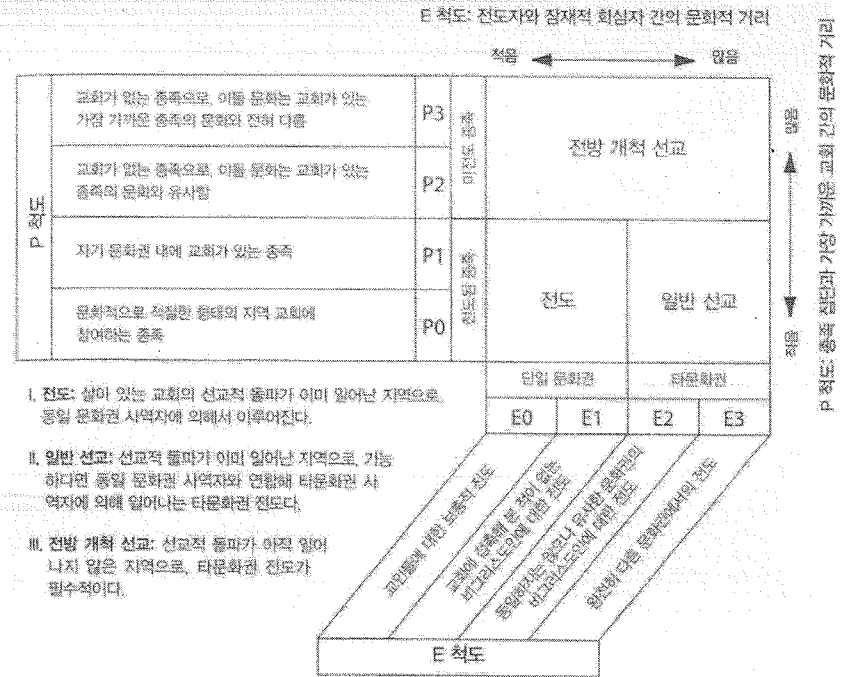
랄프 윈터와 브루스 코흐는 선교에 있어서 E등급, P등급으로 구분하여 선교지를 구분하는데, E등급은 선교사가 건너야할 문화적 거리로 이해한 등급이다. 즉, E0는 교회 내 명목상의 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E1은 자기 문화권 내의 불신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며, E2 타문화권에서 복음 전하는 것, 또한 E3는 전혀 다른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의미 한다.



[그림 8] E-등급(E-Scale)과 P-등급(P-Scale)

출처: Ralph D. Winter & Bruce A. Koch. "Finishing the Task," 16.

마찬가지로 한 종족 내에 교회가 없고 이웃종족에도 교회가 없는 종족은 P3, 자기 종족에는 교회가 없으나 이웃 종족에 가면 교회가 있는 종족은 P2, 자기 종족 내에 교회가 있으나 교회에 다니지 않는 종족을 P1, 교회를 다니고는 있으나 복음을 모르는 종족을 P1이라 칭한다, 이를 이용하여 일반선교와 전방개척선교를 구분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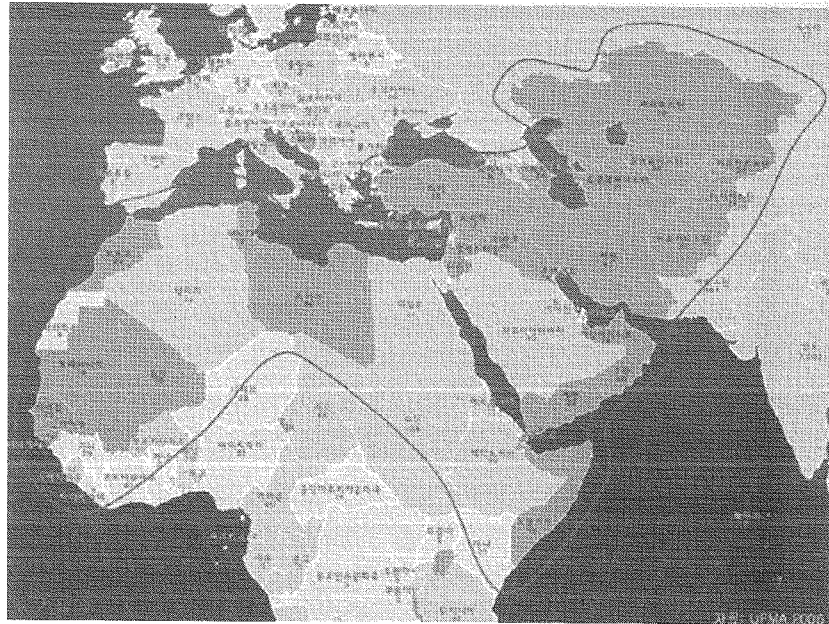


[그림 9] E-등급과 S-등급을 사용한 일반선교와 전방개척선교

출처: Ralph D. Winter & Bruce A. Koch. "Finishing the Task," 17.

[그림 9]는 E척도와 P척도를 사용하여 일반선교(G1, G2)와 전방개척선교(F1, F2, F3)를 구분한 것을 나타낸 표이다.

[그림 10]은 전방개척의 관점에서 본 전방개척 선교지를 나타내고 있다. 물론 이 지역 외에 중앙아시아의 여러 국가들과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인도 북부도 포함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원리주의의 영향을 받아 연성 이슬람에서 경성 이슬람으로 이슬람의 과격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많은 지역도 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그림 10] 전방개척의 관점에서 본 전방개척 선교지

결론

한국 교회와 선교계가 미전도종족 선교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미전도종족에 대한 시대적 필요성과 성경적 당위성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 즉 교회 지도자들과 교우들의 기종 고착된 선교방식에 대한 의식을 바꾸는 일이다. 지금과 같이 비교적 선교가 자유로운 지역에 목회자 선교사를 파송하여 교회를(보다 정확하게는 예배당)을 설립하는 방식의 선교방식으로는 ‘남은 종족’(TTR), 즉 ‘미전도종족’(Unreached People)에게 다가갈 기회조차 가지지 못하게 될 것이다.

복음은 교회가 없어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일어나지 못한 종족에게 전해져야 하고, 또한 복음을 들었으나 제자가 되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적으로 제자삼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다. 만일 오늘날의 교회가 바울이 말한 바,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으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롬 15:20-21)”라고 고백한 바울의 개척정신을 본받는다면 교회가 미전도종족 선교를 통해 남은 과업을 완수하는 것에 더욱 열심을 내고 전략적으로 선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되는 바이다.

참고문헌

- 강승삼 편. 『전방개척선교』, 서울: 한국세계선교협의회, 2005.
- 강승삼 편. 한국선교의 미래와 전방개척선교, 서울: 한국세계선교협의회, 2006.
- 김성태. 『세계선교전략사』,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4.
- 김장옥. “온누리교회 미전도종족 선교” UPMA 편. 『미전도종족: 한국 미전도종족선교 성과·과제·협력』, 서울: 업마·넷, 2014; 22-25.
- 김한준, 백옥인, 홍인옥 외 저. 『현대 도시 문제의 이해』, 서울: 한길사, 1989.
- UPMA 편. 『미전도종족: 한국 미전도종족선교 성과·과제·협력』, 서울: 업마·넷, 2014.
- 안기성. 미전도종족 입양 선교: 빛의 교회 사례, UPMA 편. 『미전도종족: 한국 미전도종족선교 성과·과제·협력』, 서울: 업마·넷, 2014; 26-33.
- 이현모. 『선교학개론』, 대전: 침례교신학대학출판부, 2005.
- 이현정. 『평신도 전문인 선교』, 서울: 성광문화사, 2010).
- 정보애. “한국의 미전도종족선교 어디까지 왔나? — 서구의 창조적 변용과 발전.” 출처: <http://www.upma21.com> (UPMA 사이트, 2014.7.30. 현재)
- _____. “한국 미전도종족선교 역사와 그 이해,” 『미전도종족: 한국 미전도종족선교 성과·과제·협력』 서울: 업마·넷, 2014.
- 조명순. “한국에 통용되는 ‘미전도종족선교’ 관련 용어,” UPMA 편. 『미전도종족: 한국 미전도종족선교 성과·과제·협력』, 서울: 업마·넷, 2014.
- 미전도종족입양운동본부. 『선교정탐훈련 표준강의안』 개정증보판, 서울: 한국 세계선교협의회 미전도종족입양운동본부, 2003.
- 한상복, 이문웅, 김광역 공저. 『문화인류학개론』,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5.
- 한수아. “도시를 통한 미전도종족 선교의 기회와 중요성.” 출처: <http://www.aap.or.kr/impac/article/article-10.html> (2002.2.1. 현재)

- 한정국 편저. 『종족창문으로 본 현대선교 1, 2』, 서울: 감인, 2014.
- Conn, Harvie. *A Clarified Vision for Urban Mission: Dispelling the Urban Stereotypes*. Grand Rapids, MI: Zondervan, 1987,
- Bosch, David. *Transforming Mission*, New York: Maryknoll, 1991.
- EMQ. “What does “reached” mean? An EMQ Survey,” *Evangelical Missions Quarterly*. Vol. 26. No.3. July 1990; 316-321.
- Greenway, Roger. *Apostles to the City: Biblical Strategies for Urban Missions*. Grand Rapids, MI: Baker. 1978.
- Greenway, Roger, and Timothy Monsma. ed. *Cities: Mission's New Frontier*.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92.
- Grigg, Viv. *City of the Urban Poor*. Monrovia: MARC, 1992.
- IBMR. “Annual Statistical Table on Global Mission: 2014.” *International Bulletin of Missionary Research*. January 2014.
- Klassen, Leo. *Regional Policy*. Saxon House, 1980.
- United Nations. *World Urbanization Prospects 1990*. New York: UN, 1991.
- Verkuyle, Johannes. *Contemporary Missiology*. Grand Rapids, MI: Erdmans.
- Winter, Ralph D. “Part I: Eleven Frontiers of Perspectives,” *International Journal of Frontier Missions*. Vol. 20. No.3. Fall. 2003; 77-81.
- Winter, Ralph D. “Part II: Eleven Frontiers of Perspectives,” *International Journal of Frontier Missions*. Vol. 20. No.4. Winter. 2003; 235-141.
- Winter, Ralph D. & Steven C. Hawthorne. *Perspectives on the World Christian Movement, 2nd ed.* Pasadena, CA: William Carey Library, 1999.
- Winter, Ralph D. & Steven C. Hawthorne. *Perspectives on the World Christian Movement, 3rd ed.* Pasadena, CA: William Carey Library, 2009.
- Winter, Ralph D. & Bruce A. Koch. “Finishing the Task: The Unreached People

Challenge,” *International Journal of Frontier Mission*. Vol. 19. No. 4. Winter, 2002.

Winter, Ralph D. & Bruce A. Koch. “Finishing the Task: The Unreached People Challenge,” Ralph D. Winter & Bruce C. Koch. ed. *Perspectives on the World Christian Movement*. 3rd ed. Pasadena: William Carey Library, 1999.

Winter, Ralph D. & Bruce A. Koch. “Finishing the Task: The Unreached People Challenge,” Ralph D. Winter & Bruce C. Koch. ed. *Perspectives on the World Christian Movement*. 4th ed. Pasadena: William Carey Library, 2009.

미전도종족선교연대 <http://www.upma21.com> (2014.7.30. 현재)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 (2014. 7.30. 현재).

고신대학교의 선교 현황과 비전*

Kosin University's Missionary Work: Present Condition and Vision

이정기^{**}

고신대학교 태권도선교학과 교수

부지

- I. 서론 | 191
- II. 고신대학교의 연원 및 변천 그리고 의의 | 193
- III. 고신대학교 선교의 출발과 선교적 관점의
학과 운영 현황 | 197
- IV. 고신대학교의 선교적 활동 | 201
- V. 고신대학교의 미래적 선교 비전 전략 | 206
- VI. 결론 및 첨부 | 213